

여성이 행복한 도시 대전

vol.36

Zoom-in

손 내밀어 주시겠어요?

Gender Talk

걷는 방법이 달라 느리게 걷는 '나'

어깨를 나란히

나의 친구 전동이

매일 연필 깎는 남자 / 예쁜 다리

나의 꿈은 예술가

마음과 마음 사이

CONTENTS

Zoom-in

손 내밀어 주시겠어요?

02



발행인
대전광역시장

발행일
2022년 12월 31일

편집위원
류유선, 권순지, 김순조, 서한나, 이유진

편집
김성곤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디자인·제작
디자인스튜디오203대전

『여성이 행복한 도시, 대전』은
대전광역시와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가
연 2회 함께 발행하는 소식지입니다.



Issue&View

쇠사슬로 몸을 묶고, 도청 바닥에서 농성하는 장애여성들	10
여성장애인을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12
‘동행’이동_같은 시공간에서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	14



Gender Talk

걷는 방법이 달라느리게 걷는 '나'	18
어깨를 나란히	19
나의 친구 전동이	20
매일 연필 꺾는 남자 / 예쁜 다리	21
나의 꿈은 예술가	22
마음과 마음 사이	23
우영우를 만나기까지 50년이 흘렀다	24
어떤 하루	25
어린이집 장애통합보육 경험을 통해 배운 진정한 통합	26
섬섬옥수	27



함께하는 생각

장애인과 가족의 자유롭고 당당한 삶을 위해 장애인부모회	28
--------------------------------	----



문화와 젠더

‘장애’가 장애가 되지 않는 사랑은 가능한가	30
연극 ‘진희의 꿈’	32
책 리뷰 「집으로 가는 길」, 「하고 싶은 말이 많고요, 구릅니다」	34

이슈 더하기

동물이 행복한 도시, 대전?	36
우리 몸에 필요한 무해한 저항	38

손 내밀어 주시겠어요?

지지합니다. 응원합니다. 이런 말이 좋아요!

2021년 12월 기준(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현황), 전국 장애인 수는 2,644,700명. 전체 인구의 5.1%입니다. 대전의 총인구보다 많은 장애인이 한국에 있습니다. 가까이 있지만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떻게 이동하며,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삶을 희망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대전의 장애인과 그 가족,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는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응원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류유선 안녕하세요.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장 류유선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다양한 주제를 이야기 했었지만, 장애분야는 처음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당사자분과 장애인 가족, 그리고 관련 일을 하시는 여러분의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우선 가볍게 각자의 소개와 하는 일부터 이야기 해주시겠어요?

이미지 안녕하세요. 중리중학교의 특수학급에서 교사로 재직 중인 이미지입니다. 저는 비교적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아 의사소통이 충분히 가능한 친구들과 같이 생활하고 있어요. 특수학급에서만 7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주로 장애학생 교육 및 상담과 장애인식 교육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류유선 학급에는 몇 명의 학생들이 있나요?

이미지 저희 학급은 5명이고요. 보통 중학교 특수학급은 6명당 한 학급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리중학교에는 10명의 학생과 2개의 학급이 있고 학급이 2개일 경우에는 교사가 1명이 더 추가 배치되어야 해서 총 3명의 특수교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김현영 반갑습니다. 중증 시각장애인이라서 빛 정도만 구분할 수 있어요. 2004년에 망막색소 변성증으로 시력을 잃었어요. 비장애인으로 살 때는 대학에서 발레를 강의했었는데 장애인이 되고 난 후에 다시 공부를 해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교육학 박사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직업으로 평소 하고 싶었던 심리상담을 하기 위해 김현영 심리상담연구소를 열어 운영하고 있고 주로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장애인가족, 장애인 관련 종사자를 위한 상담을 하고 있어요. 한국장애인 상담협회도 같이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순영 저는 대전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일하고 있어요. 2017년에 만들어져서 5년 된 기관이에요. 저는 주변이 온통 장애인인 속에서 비장애인으로 살고 있어요. (웃음) 보통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노인전문보호기관은 많이 들어보셨죠? 신안 염전노예 사건 이후에 장애인도 전문보호 기관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장애인 당사자들이나 주변에서 우리는 보호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권익을 스스로 찾고 주장하고 싶다고 해서 권리옹호기관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는 일은 '아보전'이나 '노보전'과 같은 일을 합니다. 보

통 장애인 학대 예방운동과 학대가 발생했을 때 공정하게 조사를 해서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는 중간 역할도 하고 상담, 법률지원, 사건 이후의 사례 지원 및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류유선 제가 잠깐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봤더니 대전지역의 장애인 관련 기관들이 협력기관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통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하시는 건가요?

김순영 우리 기관은 장애인 단체의 회원 기관은 아니에요. 단순히 상담 및 지원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보통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사례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에게 연계해줘요.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지 저희가 장애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역할까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윤실 저는 14살 언어장애 청소년을 키우는 엄마이자 '대전 민중의 힘'이라는 시민단체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고, 최근에는 '대전장애인가족연대' 이사도 겸하고 있어요. 대전장애인가족연대는 회원의 대부분이 발달장애인의 부모님과 가족들, 당사자들입니다. 장애인의 개별적인 욕구를 맞추기 위한 다양한 정책제안들을 조금은 '강경'하게 제안하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문진영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대전여성성폭력상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저는 생후 6개월 때 경기로 인해 뇌병변장애 진단을 받고 비장애인들 속에서 치열하게 살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차별을 스스로 바꾸는 일을 하고 있고, 장애학 박사과정 중입니다. 대전여성장애인연대는 여성장애인 당사자들의 자립을 돋고 그 가족들의 삶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니즈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원하는 곳이에요. 그 중 제가 중점적으로 하는 일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을 만나서 일상회복을 위해 상담하고 교육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사건에 대한 법률지원과 의료지원까지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전반적으로 지원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작은 냇물들이 흘러흘러 모이다

류유선 네.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시지만 사실 한 곳으로 모아지는 부분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선생님들이 일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궁금해요.

이미지 특수교사를 시작하게 된 특별한 계기는 없어요. 다만 이 일을 계속하게 만드는 힘은 학생들인 것 같아요. 매일 학생들과의 만남에서 얻는 힘이 있어서 계속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과 수업할 때 비장애인 학생보다 비약적인 발전이 있는 건 아니지만, 중학교에 잘 적응해서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서도 잘 지내는 걸 보면 뿌듯해요. 아이들이랑 많이 부딪치다 보니, 힘들고 짜증나는 순간들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러나 결국에는 아이들이 막 웃고 떠드는 해맑은 모습들 때문에 제가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류유선 특수교사는 특수교육과를 졸업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래부터 이쪽에 뜻을 두셨었나요?

이미지 처음에는 친구에게 사범대학에 특수교육과 있다는 얘기만 듣고 가벼운 마음으로 지원 했었죠. 학창시절에는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장애인을 접해본 경험이 없었는데, 대학교 교육봉사 하러 가서 처음 장애인 학생을 만났었어요. 그때 정말 힘들었다면 전공을 바꾸거나 다른 진로를 선택했겠지만, 거부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재미가 느껴졌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김현영 비장애인으로 살았었을 때는 장애인에 대해 관심이 전혀 없었죠. 저 자신이 막상 장애인이 되었을 땐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안 보여서도 밖에 못 나갔지만 나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뿐이었고, 제 모습을 스스로 거부를 하고 분노를 했었어요. 힘든 장애 수용의 시간을 보내면서 결국 내 삶은 내가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라는 생



각을 하게 되면서 다시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 물질적인 부분보다는 그 이상의 것을 채워주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시스템에 적응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장애인들이 개별 맞춤형 시스템이 구축이 필요하겠구나! 그가고 역할을 내가 좀 해봐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굳하게 되었어요.

후에 학대 예방을 위한 기관에서 같이 또 시작해보지 않을래? 해서 지금 권익옹호기관에서 함께 일을 하게 되었어요.

류유선 개인의 필요도 있었지만, 여러 의견을 모아 하나의 단체를 만드신거네요. 정말 큰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김순영 저는 33살에 남편이 장애를 입었어요. 훨 체어를 타게 된거죠. 장애가 다양한 것처럼 장애 가족력도 다 달라요. 젊은 나이에 갓난쟁이도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장애인이 되니까 생활이 완전히 영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때는 밑바닥까지 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밑바닥 삶을 살면서 중도 장애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을 하고 있다가, 어쩌다 보니 주변의 장애인과 함께 모임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전국적인 조직인 여성장애인연대가 대전에만 없는 것을 알고 몇몇 분들의 도움으로 낙달인가 다섯달만에 단체를 뜯딱 만들었죠. 제가 YWCA와 인연이 있어서 단체를 만들고 일을 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죠. 그 이후에 부모연대와 함께 활동보조인, 교육권, 평생교육지원, 교육권 연대 등에 대한 투쟁을 같이 하면서 장애운동을 했어요. 그 인연으로 퇴직

신윤실 저는 대학교 때 대학신문사에서 활동했어요. 기사를 쓰고 현장을 취재하고 이런 것에 흥미를 느꼈죠. 대학 신문사 기자를 짧게 했지만 사회를 보는 눈이 한번 트이니까 활동을 유지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분만사 고로 인해서 아이에게 뇌손상이 생겨서 장애가 생겼어요. 제 아이같은 경우는 사회가 규정해둔 장애의 기준에 미묘하게 넘나드는 장애예요. 지적검사를 하면 70점 미만이 나와야 하는데 이 아이는 그것보다는 아주 약간 높게 나와요. 뇌손상이 있기 때문에 몸 쓰는 것도 둔하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장애 판정을 할 때 유형별로 각각 검사를 하니까 당시자의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장애등급으로만 판단하죠. 결국 우리 아이는 언어장애만 진단되어서 언어장애인으로 된 것이지 흔히 말하는 말만 어눌

결국에는 아이들이
막 웃고 떠드는 해맑은 모습들
때문에 제가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아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권리 찾는 활동을 다시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부모연대에 발달장애 부모님들이 많으신데 제 아이는 발달장애는 아니지만 발달장애에 대해서 그런 투쟁과 정책 제안을 하게 된 거죠. 결국 우리 아이의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진영 저는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살아오면서 가정과 학교, 사회 속에서 수많은 차별과 배제를 겪었어요. 스무 살 이전에는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어요. 가정과 학교에서는 안전과 보호라는 통제의 틀에 갇혀 있어 '기회'와 '선택'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죠. 고등학교 졸업 후에 우연한 계기로 장애인단체를 알게 되었고 사회복지사 선생님을 통해 제가 갖고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알게 되었죠. 저도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동안 가정과 학교에서는 '니가 뭘해', '넌 힘드니까 내가 해줄게', '거봐 네가 하니까 느리고 볼 품 없지' 등의 말들로 저를 위축되고 무기력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제가 만난 사회복지사 선생님은 저한테 늘 '잘한다', '재능있다', '센스있다' 같은 말로 늘 지지해줬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셨어요. 그 영향으로 저도 누군가의 삶에 작거나마 필요한 존재가 되면 내가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많은 시도와 도전을 하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도 어디서 누구를 만나며 차별을 받게 될지 두려워요. 저도 멘탈이 약해서 힘들 때가 많긴 하지만 제 옆에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어떻게든 버티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때때로 차별, 불편함을 겪을 때마다 이렇게 태어난 내가 문제인가? 하는 고민은 아직도 해결이 안됐지만 사회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건 느끼고 있어요. 정책이 만들어져서 생기는 혜택은 저한테도 오고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도 돌아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 공부하고 있고 성장하려고 해요.

류유선 문선생님은 누구보다 사회의 편견이나 부모의 과잉보호로부터 독립적으로 성장하신 정말 용기있고 대단한 분이세요.

문진영 지금도 사실은 독립을 하려고 시도를 하는 중인데, 그런 도전은 비장애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단지 장애인들은 한번 더 도전이 필요하다는 것 뿐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음 좋겠어요. 제가 원하는 것은 '질' 못한다고 해서 너무 과잉보호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점이에요

신윤실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웃음) 저희 집 근처 초등학교의 특수학급이 너무 과밀한 거예요. 특수학급 정원이 6명인데 11명이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멀지만 작은 학교로 보내게 되었어요. 제가 계속 등·하교를 시켜줬죠. 한 때 제가 바빠지면서 신경을 못 쓰게 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아이가 혼자 집을 걸어와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한 25분 정도 걸리는 거리를요. 그래서 제가 3,4일 정도 미행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씩씩하게 잘 오더라고요. 그때 내가 너무 과잉보호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현영 제가 장애인 되고 난 이후에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이거였어요. 한 4년 동안을 가만히 있어 봤는데 그건 죽는 거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제가 강의 다니면서 한 친구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중간 쉬는 시간에 저한테 와서 말을 하는거에요. 언어 장애가 굉장히 심해서 말 한마디하는데도 한참의 시간이 필요하고 잘 알아듣지도 못할 정도였거든요. 그래도 가만히 기다리면서 결국 들어보니까 "내 말을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었어요. 대부분 기다림보다는 통제라는 더 쉬운 길을 선택하기 때문이죠.

스무 살 이전에는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어요.
가정과 학교에서는 안전과 보호라는 통제의 틀에 갇혀 있어
'기회'와 '선택'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죠.





교육과 돌봄정책에서
현실과의 괴리감이 느껴져요.
장애인은 교육과 돌봄이 비장애인보다
더 절실하게 필요해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보는 사회

류유선 그렇죠. 배려보다는 통제를 더 쉽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여전히 사회의 문제를 만들어 내고 있는 원인이기도 하죠. 그래도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정책에 생애주기, 과정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물론 사람마다 그 과정은 다 다르고 당연히 그 과정대로 살아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장애인의 관점에서 생애과정 별로 어떤 정책들이 좀 더 필요할까요?

신윤실 부모 입장에서 아이 이야기를 하자면요. 교육과 돌봄정책에서 현실과의 괴리감이 느껴져요. 장애인은 교육과 돌봄이 비장애인보다 더 절실하게 필요해요. 장애인 본인의 경험이 많지 않으니 뭘 원하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내놓는 대부분의 정책들은 굉장히 시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를 보호한다는 명분 하에 도움반에서 지내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한다거나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가 중학교 체육시간에 공을 한번 맞은 적이 있는데 그 후에 아이가 다칠까 염려된다면서 체육시간에는 도움반에 가 있으면 어떻겠냐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물론 학교에서는 아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결국 아이를 배제하고 격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교육이 현장에서는 만연하다는 거죠.

이미지 정책적인 부분에서 크게 많이 아는 바는 없지만 교육 현장에서 제일 고민되는 부분은 성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제가 가르쳤던 여학생들의 절반 정도는 랜덤채팅 또는 라이브 방송 같은 어플을 많이 사용해요. 학생들은 어플을 통한 범죄의 위험성을 크게 인지하지 못하고 어른들이 24시간 감시할 수도 없으니 쉽게 위험에 노출되더라고요. 한 예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자기 번호를 유출하게 되었는데 그 번호로 키스하자, 만나자, 모텔가자 이런 식의 문자가 오는 거예요. 비장애인 학생



들도 이런 문제에 대처하기가 힘든데, 장애 학생들에게는 너무 어려운거예요. 학생 보호를 위해 교육청 지침에 따라 성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강사들의 수업에는 집중하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다보니 교육이 어렵거든요. 결국 고민하다가 저희 특수교사들이 직접 성교육을 해보려고 교육자료를 찾아봤는데 자료가 너무 없어요. 간신히 어떤 논문을 통해 자료를 만들었지만 현재 상황에 맞추려면 또 보충이 필요하더라고요. 정말 표준화된 국가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장애인 유형별로 세밀화된 맞춤형 성교육 과정이 개발되고 교사를 위한 연수가 더 많이 개설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문진영 얼마 전에 기사님이 제게 언어폭력을 해서 CCTV 요청을 했는데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는 거예요. 기록이 3일만 저장되서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피해를 자신이 증명해야 되는 게 2차 피해인데 특히 장애 여성들에게 입증은 너무 어려워요. 더 촘촘한 방안이 필요해요.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어떤 관계가 수평적인 관

계인지 그 누구도 세세하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런 걸 모르니까 피해에 노출되는 거예요. 이미지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교재, 교육이 세세하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김순영 한 15년 전쯤인가? 그때도 특수학급 선생님들이 이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저희도 사실 그 때 상담소가 처음 생긴 상황이라서 같이 소통을 하면서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서로가 너무 빈약한 상태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 잘 안됐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노력들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신윤실 정부 지원 정책 중에 학령기 때 치료지원비, 장애 재활치료비, 방과 후 수업비 등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영역을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 치료를 받는 경우가 생기기도 해요. 예산을 지원하는 주체가 다르다보니 그렇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장애아동이 원하는 치료나 교육이 있다면 이 부분에 맞춰 지원을 해주는 융통성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없어요. '예산을 배치했으니 끝이다'라는 관점으로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한 생애주기별 복지정책이 생존권을 유지할 정도의 기본적인 단계에만 머물러 있어요. 20대 이후의 학령기가 끝난 발달장애인의 부모들에게는 돌봄의 부담이 온전히 다시 돌아와요. 장애인의 돌봄이나 생애를 보장하는 것은 결국 노동권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전 내의 장애인 작업장이나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려고 해도 전체를 다 수용할 만큼 규모가 충분하지 못해요.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장애인을 필수로 채용해야 한다지만 벌금을 내고서라도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는 기업들도 많고요. 이런 악순환을 그냥 두고 보면서 손 놓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장애인들이 어떻게 내가 앞으로 먹고 살 계획을 세울 수 있겠어요? 사실 저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합' 진행한 지하철 투쟁도 노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장애인의 인권을 만들어내는 생산적인 일이죠.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인권을 신장시키는 활동도 노동으로 인정해줄 필요가 있고, 정부와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함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김순영 저는 생애과정에서 장애인의 노년기를 꼭 말하고 싶어요. 제가 직장생활을 주로 NGO에서 했기 때문에 퇴직 후에 연금을 받긴 하겠지만 매우 적어요. 남편도 중도에 장애를 입어 일을 못했으니 연금이 없고, 저의 퇴직과 동시에 수급 자가 아닌 빈곤층이 되는 거지요.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보다 빨리 노화가 되고 몸이 아프고 활동시간이 짧아져요. 제가 돈을 벌 때는 그래도 병원을 가지만, 연금만 받는 시기가 되면 병원을 어떻게 가야 되냐는 거죠. 생활비는 줄일 수 있지만 병원비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부담스러운 마음에 주민센터에 가서 나만이라도 의료수급을 해달라 했더니 배우자가 돈을 벌고 있어서 안된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애매한 위치의 중증장애인은 살아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장애등급제가 없어져서 1급부터 3급까지가 중증인데 과거의 3급은 혜택이 너무 없어요. 같은 중증이지만 예산이 없대요. 어떻게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도 중증인 장애인은 최소한 병원비 지원이나 기초연금하고는 상관없이 장애연금을 줘야 한다는 거죠. 노령 중증 장애인의 빈곤을 예방하기 위해 고민해야 해요. 안그래도 노인들의

빈곤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중증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은 더 힘들다는 것을 파악하고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봐요.

문진영 저는 장애인이 생산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30세까지는 콜택시를 이용하지 않았어요. 보행이 가능하고 혼자 택시, 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안에서 겪는 차별이 많았어요. 언어폭력이 가장 심했고, 몸도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2,3년 일을 하면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게 되었는데 매번 2시간씩은 기다리는 것 같아요. 바우처 도입이 됐어도 3만원은 2번 타면 사라져요. 일하는 장애인 여성이 출퇴근 이를 하면 바우처는 끝나는거죠. 그러면 또 2시간을 기다려서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데, 저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걷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이동이 가능하지만 그게 정말 안되는 분들도 많거든요. 직장인들은 모자라고 못쓰는 사람들은 남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공평한 것도 중요하지만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이라면 장애인들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해주면 좋겠어요.

김현영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단순히 복지 예산만 늘리고 우리 잘 살게 해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게 원지를 파악하고 배려해서 정책을 세워달라는 거죠. 각 생애과정 안에서 다양한 장애인들을 위한 지원이 구체적으로 실행되어야 해요. 그 중에서도 의료지원, 교육지원, 직업재활 지원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해요. 생애과정에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는 기회는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신윤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아이와 치료실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돌봄을 하기 위해 같이 오는 보호자는 다 엄마뿐이더라고요. 돌봄이 오롯이 엄마에게 쏠리고 아빠는 돈을 버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엄마는 경력단절이 되는거죠. 지금은 시간별로 활동보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것도 다 되는게 아니고 기준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정책 지원을 받을 때 아이의 장애를 부모 스스로 증명해내야 하는 과정이 너무나 괴로워요. 지원을 더 받기 위해 일부러 아이에게 한글을 안 가르치기도 한다는 우스개 소리가 실제로 있는 현실이니까요. 엄마들도 자괴감이 생기는 거예요. 한정된 예산안에서





단순히 복지 예산만 늘리고 우리 잘 살게 해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들이 정말 원하는게 뭔지를 파악하고 배려해서 정책을 세워달라는 거죠.

더 많이 지원받기 위해 장애를 증명하라고 하지 말고 각 당사자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봐주면 좋겠어요. 한정된 파이 안에서 내꺼니 니꺼니 싸우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생각해요. 장애인이 편하면 비장애인도 편한 거라는 그런 관점을 갖는 정책이 필요해요. 지하철 엘리베이터도 처음에는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만들었지만 지금은 누구나 많이 이용하는 것처럼요.

이미지 보통 특수교사라고 하면 봉사정신이 뛰어나야하고 희생정신도 있어야 한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저는 제가 특별히 척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인데 그런 말씀을 해주실 때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더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현영 그동안 우리 사회는 장애인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다면, 이제는 장애인의 존재를 인정하는 단계에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사회는 장애인 따로 비장애인 따로 인식하는데, 이것 자체가 달라져야죠. 그런데 아직은 우리 사회가 그렇게까지 성숙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라고 봐요. 물론 다양한 지원 정책들과 혜택들이 많아지기는 했어요. 그렇

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원지를 스스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동안 장애인을 대신해 주변에서 많이 외쳐왔어요. 장애인들은 그들이 외치는대로 그냥 따라서 외치다보니 내가 정말 뭘 원하는지 생각을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상담을 할 때 항상 그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그리고 진정원하는 게 원지를 고민해보게 하죠. 장애인들에게 진정한 배려를 하고 싶다면 자례짐작으로 선심 쓰듯 이 정책을 만들지 말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들 어줄 수 있는 자세부터 갖춰야 한다고 생각해요.

문진영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아이를 키우는 장애인이 데리고 갈 곳이 없어요. 아이를 키우는 여성장애인에게 초점을 맞추면 아이를 키워줄 사람이 없고, 아이에게 맞추면 엄마에게 선택권이 없어져요. 이런 조건들이 더 완화되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정책이 있으면 좋겠어요.

신윤실 저도 “정말 좋은 일 하시네요.” 그런 이야기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제 아이만을 위한 그런 활동이었으면 저는 이렇게까지 활동을

넓혀가며 열심히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도 있지만 다른 장애인들을 위해 파이를 넓혀가는 활동들 하나하나가 장애인도 한 명의 시민으로서, 결정권이 있는, 의지가 있는 당사자로 인정받게 되는 조각들이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텨온 것 같아요.

류유선 좋은 일 하시네요! 이런 말 말고 어떻게 응원을 하면 좋을까요?

신윤실 지지합니다. 응원합니다. 이런 말이 좋아요. 누구나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잖아요. 특별한 일을 하는 것처럼 포장해주시면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류유선 너무 짧게 느껴지는 2시간이었어요. 이번에는 처음이라 일반적 주제로 접근을 했지만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분야별로 나눠서 더 깊은 대담을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새롭게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현장에 선생님들이 계시기에 대전에서도 장애인의 권리가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감사합니다. ☺

쇠사슬로 몸을 묶고, 도청 바닥에서 농성하는 장애인여성들

하민지_비마이너 기자

10월 25일, B1 버스에 드디어 저상버스가 도입됐다. B1 버스는 대전에서 세종을 거쳐 충북 오송까지 가는 간선급행버스다. 구청, 시청, 시의회, 정부청사 등 공공기관과 충남대병원, 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 등 대전·세종·충청 시민의 주요 생활권을 지나간다. 지금까지 B1 버스에는 휠체어 이용자가 탈 수 있는 저상버스가 한 대도 없었다. 이번에 저상버스가 도입돼 휠체어 이용자도 B1 버스에 탈 수 있게 됐지만, 단두 대뿐이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사람들은 새로 도입된 B1 2층 전기 저상버스를 '문경희 버스'라 불렀다. 문경희는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세종장차연)에서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장애여성이다. 문 대표는 세종 지역에서 가열찬 이동권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B1 버스를 상대로 '매일 5분 버스잡이'라는 이름의 캠페인을 진행했다.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휠체어 이용자가 탈 수 없는 B1 버스가 오면 차도로 내려가 버스를 멈춰 세운다. 버스 외벽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라" 등이 적힌 스티커 수십장을 붙인다. 쇠사슬로 버스 앞문과 자신의 몸을 묶는다. 그렇게 5분간 버스를 강제로 정차시킨다. 문 대표가 이 같은 캠페인을 벌이면 버스 기사와 승객 모두 화를 낸다. 서울에서 벌어지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지하철 시위와 비슷한 폭력적 장면이 세종에서도 펼쳐진다. 문 대표는 쇠사슬에 묶인 몸으로 꿋꿋하게 마이크를 잡고 숨을 고르며 이야기한다. "우리도 세종시 시민입니다. 이 버스에 타신 승객분들처럼 평범하고 당연하게 이동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같이 좀 살아갑시다." 이런 투쟁을 지난해 1년간 매일 진행했다. 사람들이 B1 저상버스를 '문경희 버스'라고 부르는 건, B1 저상버스가 이 같은 과정으로 도입됐기 때문이다. 문 대표는 "솔직히 무섭고 힘들었지만 저상버스를 타고 세종시청에서 바로 오송역 까지 가니, 눈물이 난다"고 말했다.

올해 50세인 문 대표는 중증 뇌성마비 장애인이다. 그는 4월 7일,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요구하는 전장연의 삭발 투쟁에 동참했다. 투쟁 결의문에 자신의 생애를 짧게 기록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초·중·고등학교에 다니지 못했다. 형제들이 소풍 가는 날, 어머니가 김밥을 싸시면, 형제들 도시락 가방에 들어가고 남은 걸 집에서 혼자 먹었다. 그렇게 재가장애인으로 25년을 살았다. 문 대표는 “세상과 격리된 채 청춘을 보내는 것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걸을 수 없고, 언어장애가 있고, 한쪽 팔을 사용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을 가진 몸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술회했다. 2003년, 우연히 전장연 워크숍에 참여한 문 대표는 장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고, 사회 속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됐다. 대전의 장애여성들과 함께 대전 여성장애인연대를 결성해 부대표를 맡았다. 이후 세종장애인인권연대 대표, 세종보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세종장차연 공동대표 등을 두루 거치며 대전·세종·충청 지역의 장애인 운동에 헌신해 왔다. 11월 8일에는 충청북도 장애인의 광역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1박 2일간 도청을 점거하기도 했다. 그날 밤, 도청에는 임경미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아래 옥천센터) 소장도 있었다. 임 소장은 4월 22일에 삭발했다. 까까머리를 한 문 대표와 임 소장이 그날 밤 노숙농성을 하고 있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임 소장은 문 대표와 함께 대전·세종·충청 지역에서 장애인 운동에 헌신해 온 장애여성 중 한 명이다. 그는 매일 아침, 자신의 손으로 만든 직장인 옥천센터로 출근한다. 2009년, 자조모임으로 출발해 5명으로 시작한 옥천센터는 현재 정직원 6명, 회원 300명 규모로 커졌다. 올해 53세인 임 소장은 문 대표와 마찬가지로 장애로 인해 학교에 가지 못했다. 매일 밤 ‘스무 살이 되기 전에 죽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춘기 시절을 보냈다. 그런 임 소장이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생각한 건 둘째를 임신했던 2007년이었다. 첫째를 키울 때,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야 하는데 곳곳에 턱과 계단이 있어서 제대로 이동하기 힘들었다. 병원에도 계단만 있고 엘리베이터는 없었다. 임 소장은 걸을 수 있는 지인에게

“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초·중·고등학교에 다니지 못했다. 형제들이 소풍 가는 날, 어머니가 김밥을 싸시면, 형제들 도시락 가방에 들어가고 남은 걸 집에서 혼자 먹었다. 그렇게 재가장애인으로 25년을 살았다.”

아이와 함께 병원에 가출 것을 부탁했다. 지인과 어렵게 시간을 맞춰 병원에 갔다. 진료가 끝날 때 까지 병원 건물 밖 1층에서 기다려야 했다. 지인이 아이를 안고 내려오면 ‘의사가 뭐래?’라고 묻는 수밖에 없었다. 둘째도 그렇게 키울 수는 없어서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했다. 그러나 ‘활동지원서비스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임 소장이 옥천군청에 항의하니 돌아온 답은 ‘손은 쓸 수 있어서’였다. 임 소장은 “그때는 지금처럼 강심장이 아니었어요. 눈물밖에 안 나와서 이를 내리 울었어요”라고 말했다. 절망한 임 소장은 다 포기해 버리고 싶었다. 그때 생각 하나가 스쳐 지나갔다.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누군가는 나 같은 일을 또 겪지 않을까?’ 임 소장은 A4 용지 세 장이 넘는 항의서한을 작성했다. 보건복지부, 충북도청, 옥천군청에 보냈다. 항의 끝에 얻어낸 활동지원서비스는 월 60시간, 하루 2시간 수준이었다. 임 소장은 옥천센터 설립 후 옥천 지역 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시간부터 확인했다. 이동권을 침해하는 옥천 길거리 턱도 얼마나 있는지 조사했다. 그렇게 투쟁해서 옥천 장애인의 활동지원시간을 늘리고 이동권을 확대해 갔다. 현재 임 소장은 전국장애인인권연대 이사이기도 하다.

단 두 대뿐이지만 B1 버스에 2층 전기저상버스가 도입됐다. 일주일 전에 예약해야 탈 수 있었던 세종시 장애인콜택시 누리콜은 비장애인인 쓰는 콜택시처럼 즉시콜이 가능하게 됐다. 2023년 충청북도 장애인콜택시 예산은 2억 5천만 원이었지만, 도청을 점거하는 노숙농성 끝에 10억 원으로 증액됐다. 문경희 대표, 임경미 소장과 같은 대전·세종·충청 지역의 장애여성들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지역의 현실에 조금씩 균열을 내고 있다. 청춘을 집에서만 보낸 그들은 중년이 돼서 대전·세종·충청에서 살아갈 미래의 장애인이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길을 닦는 중이다. ‘여행대전’이 대전 시청을 비롯해 대전지역 내 공공기관에 배부된다고 들었다. 이 잡지를 보는 모든 공무원들은 20년 넘게 버스에 몸을 묶고, 휠체어에서 내려와 도청 바닥에 앉아 밤을 지새우는 장애여성의 목소리를 경청해달라. 그들이 대전·세종·충청의 장애인 정책을 바꾼 주역이다. Ⓜ

여성장애인을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유승화_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표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중의 특성으로 인하여 삶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취약한 상황이다. 이는 국가의 장애 관련 또는 여성 관련 정책에서 장애여성 욕구에 적절한 법적·제도적 지원은 거의 전혀 없으며, 있다 하더라도 극히 제한적이거나 부분적이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장애인은 지속적으로 다중차별의 상황에 놓이게 되고, 이러한 다중 차별들은 누적되는 개념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교차하여 새로운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상징화한 것이 「UN장애인권리협약 제6조」라고 할 수 있다. 본 조항은 여성장애인의 여성성과 장애인이라는 양 정체성에 기반을 둔 차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유엔인권규약 중 최초로 성별과 장애 양쪽에 기반을 둔 차별을 금지하는 역사적 조항으로 평가할 수 있다. (류민희, 2016; 서해정 외, 2018)

여성장애인은 교육 수준, 경제활동 참여율, 소득 수준 등이 남성 장애인과 비교해 현저하게 열악하다. 또한, 여성장애인은 성폭력, 가정폭력에서도 그 위험성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장애인은 권리와 참여가 제한된 채 불평등한 사회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다. 여성과 남성이 구조적인 차별은 없다고 하지만, 여성 중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성장애인은 우리 사회에서 구조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 여성장애인의 교육 정도는 초등학교(37.6%), 고등학교(21.5%), 무학(16.9%) 순이었는데, 무학을 포함한 초등학교 학력은 54.5%나 된다. 이는 남성장애인의 24.9%와 비교하면 거의 두 배 높은 것으로, 여성장애인의 교육 수준이 매우 낮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대학 이상의 경우도 남성장애인(18.7%)이 여성장애인(8.2%)보다 2배 이상 많았다.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고용현황을 보면 더 심각하다. '2020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 인구 중 임금근로자는 여성이 182,366명, 남성이 438,675명으로 각각 29.4%, 70.6%로 나타났다. 이는 수치상으로 남성장애인이 여성장애인보다 2배 이상 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을 보면 여성장애인은 78.5%, 남성장애인은 51.5%로 여성장애인이 남성 장애인보다 약 20% 정도 높게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과 고용 안정성에 제한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 형태도 전일제 근로가 남성은 73.2%, 여성은 38.7%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 20% 정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

여성과 남성이 구조적인 차별은 없다고 하지만, 여성 중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성장애인은 우리 사회에서 구조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

”



『UN장애인권리협약』 제6조에는 “당사국은 장애 여성과 장애 소녀들이 다중적인 차별의 대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장애여성과장애 소녀들의 모든 인권 및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하고 동등한 향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당사국은 본 협약에서 제시된 인권 및 기본적인 자유와 향유와 실행을 보장하기 위해 여성들의 완전한 발전, 향상, 역량강화를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여성장애인 중 폭력에 노출된 상황을 보자.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의 2021년 상담 현황을 보면, 장애인 상담 1,513건 중 성폭력 상담 1,241건, 가정폭력 55건, 일반 상담 217건으로 성폭력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았다. 비장애인 상담과 비교해 볼 때 3배 이상 많다. 이 상담 중 본인 상담이 880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족·친인척 상담 344건, 여성 폭력피해자 지원기관 119건, 수사·사법기관 116건 순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 유형을 보면 강간 및 유사 강간 799건, 강제추행 384건, 통신매체 이용 음란 58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자장애 유형을 보면 발달(지적+자폐성)장애 32명, 정신장애 3명, 중복 장애 3명, 지체장애 2명, 기타 장애 순으로 성폭력 피해자 대부분이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성폭력 피해자의 연령을 보면 19세~65세 32명, 13~19세 12명, 미파악 순으로 나타나 성폭력 피해자의 연령이 전 세대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피해 상담 건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고소·고발은 수사 단계 37건, 기소·공판 2건,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2건, 기해자 미신고 3건, 미파악 11건으로 기소·공판이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위 실적은 2021년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서 진행한 실적이다. 전국에 있는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서 진행한 상담 건수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우리나라『장애인복지법』 제7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제9조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및 제37조(산후도우미의 지원 등), 제55조(활동지원급여의 지원) 등의 관련 조항이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는 장애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UN장애인권리협약은 기존 장애인의 문제를 시혜적 복지 차원에서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는 큰 변화를 끌어냈다. UN장애인권리협약 제6조는 한국 여성장애인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만들어낸 조항이다. 그러나 국내법에는 장애여성과 장애소녀를 다중적 차별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반영한 법률이 없다. 장애인복지법 등 국내법에서 여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항이 존재하나 프로그램 형식으로 정책들이 나열되어 있고 실제 예산지원은 미흡한 상황이다.

다중차별의 대상인 여성장애인들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역량강화 등을 위해 실효성 있는 여성장애인의 특성이 반영된 법안이 2021년 12월 2일 최혜영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여성장애인은 교육, 고용 등 여러 분야에서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남성장애인에 비해서도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 장애인복지법 등 기존의 법률로는 충분한 지원을 하기에 미흡하므로 여성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이에 여성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장애여성 정책 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고용, 폭력 피해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이라고 법률 제정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

여성장애인은 지금까지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다중의 차별을 받으며 살아왔다. 지금부터라도 여성장애인을 온전히 지원할 수 있는 장애여성지원법(여성장애인지원법)이 하루속히 국회에서 통과하여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날이 빨리 이루어지길 바란다. **W**

‘동행’이 몽_ 같은 시공간에서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¹⁾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1년 12월 기준 전체 등록장애인의 수는 264만 5천 여명. 전체 인구의 5.1%에 해당하는 인구다. 보건복지부의 설명에 따르면 장애인 대상 서비스 확대와 장애인 등록제도에 대한 이해도 상승으로 매년 등록장애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비율로만 보면 적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대전의 전체 인구보다 많은 숫자다. 모두가 어울려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황파악과 인식의 개선이 먼저 요구된다. 본 인포그래픽을 통해 주변의 장애인들에 대해 이해와 배려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미 공개되어 있는 장애인 통계 중에서 선별하여 작성했다.



수집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인포그래픽의 내용은 편집자의 주관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등록장애인 수

■:전국 ■:대전 ●:여성 ●:남성

단위: 명, %



사회적 차별 경험 여부

■:전체 등록장애인

단위: %

■:여성 등록장애인

■:남성 등록장애인



장애인의 차별은 교육을 받기 시작할 때부터 생활이 된다. ‘초등학교 입학 및 전학시’ 전체 장애인의 37.2%가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었고 ‘중학교 입학 및 전학’ 33.5%, ‘또래학생으로부터’ 29.4%, ‘고등학교 입학 및 전학시’ 26.5%의 순서로 기초교육의 전 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었다. 성별로 구분해서 보면, 교육 기회에서는 여성이 더 많이 차별을 경험하고 있었고, 취업으로 인한 차별은 남성보다 적게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이 취업을 더 잘해서라기보다는 미취업 상태에 있는 비율이 더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1)등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동법 제32조에 의하여 시·군·구청에 등록한 자를 말함(2022 장애통계연보, 한국장애인개발원)

· 2021년 12월 말 기준, 2020년 기준

·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2022), 「2022 장애통계연보」에서 재구성 보건복지부(2020),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재구성

·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2022), 「2022 장애통계연보」에서 재구성

전체 장애인 중 '중졸 이하'는 절반 이상,

그 중에서 여성장애인은 70.8%

교육 기회에서의 차별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교육 수준으로 직결된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장애인구와 전체인구의 교육 수준의 차이는 명확하게 드러난다. 장애인은 매년 절반 이상이 중졸 이하의 학력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전체 인구는 고졸이 평균 76% 이상으로 나타나 전체인구 대비 장애인구의 교육 수준이 낮은 편인 것을 볼 수 있다. 장애인구 안에서의 성별격차도 두드러진다. 21년 기준 전체 장애인구 중 여성 장애인의 70.8%가 중졸 이하로 나타나 남성 45.9%와 비해 24.9%p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성장애인은 장애인 계층 속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

· 2020년 기준

-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2022), 「2022 장애인통계연보」에서 재구성
- 대졸이상 - 대학(3년제 이하)에서 대학원까지 모두 포함
- 장애인구는 2021년 5월 기준
- 출처: 장애인고용공단(2021), 「2021 장애인 경제활동실태 조사」에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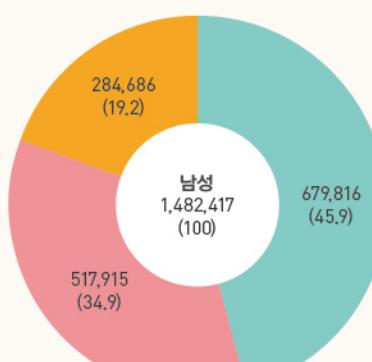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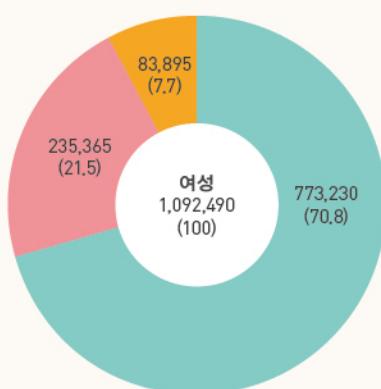
장애인의 교육 수준 (전체인구 비교)

	장애인구	전체인구			단위: 천 명, %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2,460	1,439 (58.5)	712 (28.9)	308 (12.5)	2017	16,205 (37.1) 16,435 (37.6) 11,095 (25.4) 43,735
2,495	1,462 (58.6)	713 (28.6)	319 (12.8)	2018	16,690 (37.8) 16,569 (37.5) 10,882 (24.7) 44,141
2,526	1,437 (56.9)	745 (29.5)	342 (13.6)	2019	17,173 (38.6) 16,682 (37.5) 10,605 (23.9) 44,460
2,562	1,453 (56.7)	769 (30.0)	340 (13.3)	2020	17,463 (39.0) 16,916 (37.8) 10,377 (23.2) 44,756
2,574	1,453 (56.4)	753 (29.3)	368 (14.3)	2021	17,877 (39.7) 16,908 (37.5) 10,264 (22.8) 45,049

장애인의 교육 수준 (성별)

■: 중졸 이하 ■: 고졸 ■: 대졸 이상

단위: 명, %



교육 수준에서의 차별은

경제활동과 가구소득의 차이로 이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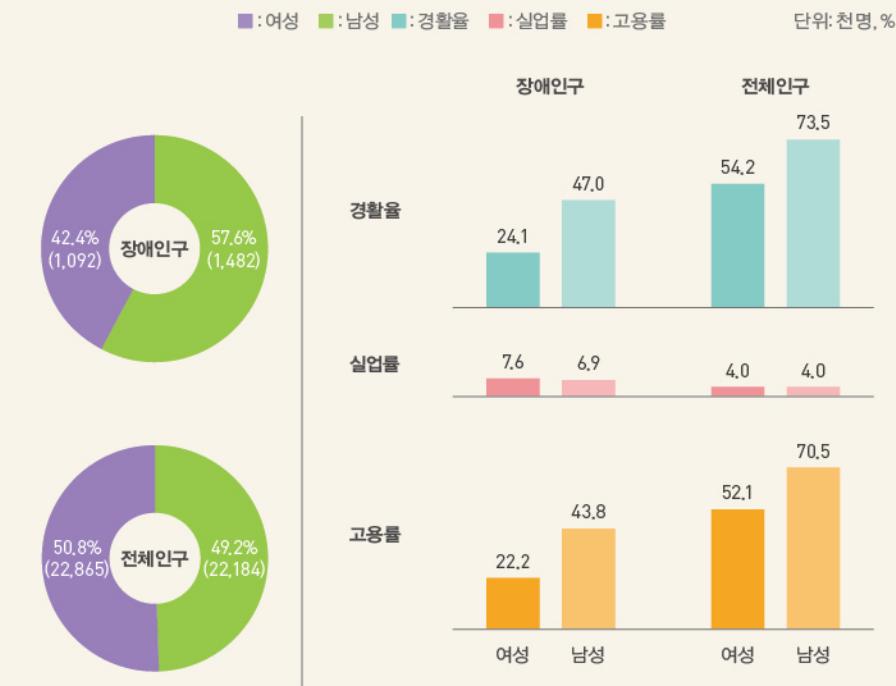
장애인은 교육의 수준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에 서도 비장애인에 비해 전반적으로 참여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5월 기준 경제활동상태를 보면, 전체인구 대비 장애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성 30.1%p, 남성 26.5%p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고용률에서도 여성 29.9%p, 남성 26.7%p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성 장애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여성 전체인구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남성 전체인구와 비교하면 1/3수준도 되지 못하고 있다. 경제활동분야에서 여성장애인의 취약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아닐까?

연이어서 가계 소득과 지출을 살펴본다. 그림에서와 같이 장애인가구의 소득과 지출은 전체가구의 소득과 지출에 비해 50%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20년 전체인구의 지출이 낮아진 것은 조사방식이 달라진 것과 코로나-19로 인한 외부활동 감소의 영향으로 추정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가구에 비해 장애인가구의 소득과 지출은 여전히 큰 차이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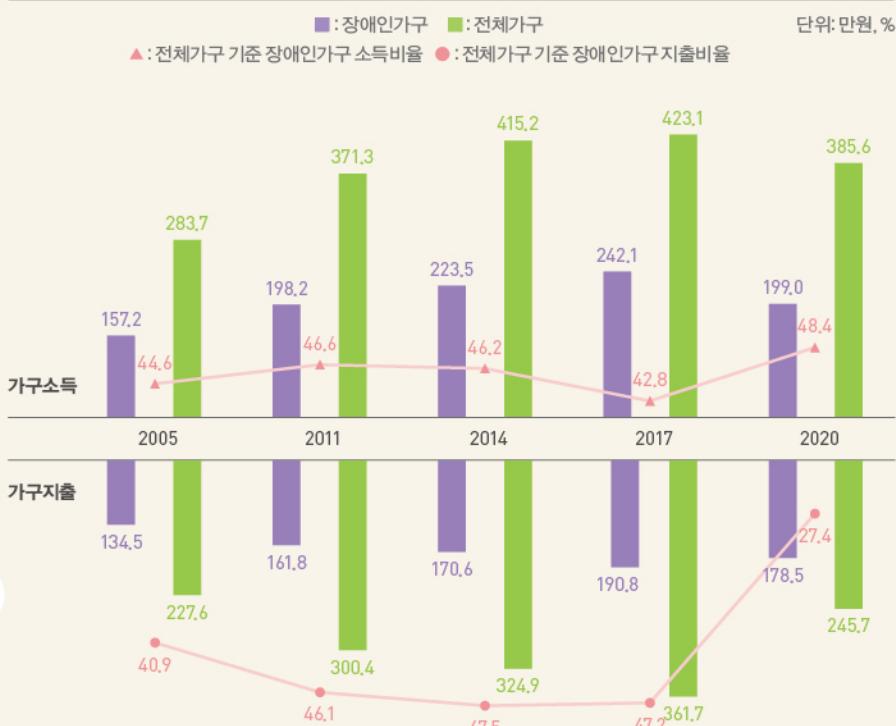
- 전체가구는 가계 동향조사기준이며, 각연도 6월 기준임
-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까지는 전국 가구(2인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수지(소득 및 지출) 자료를 사용하였으나, 장애인 1인가구 증가를 고려하여 2017년 보고서부터는 전국 가구(1인가구 이상)의 자료를 사용함
-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 「2022 장애통계연보」에서 재구성
- 경활률(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수 / 15세 이상 생산기능인구 * 100
- 실업률=(실업자수 / 경제활동인구) * 100
- 고용률=(취업자수 / 15세 이상 생산기능인구) * 100
- 2021년 5월 기준.
-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2022), 「2022 장애통계연보」에서 재구성



2021년 경제활동 상태 – 전체인구 비교



장애인가구 및 전체가구 월평균 가구소득 및 지출





장애인가구, 전체가구에 비해 의료비는 더 사용하고 교육비는 덜 사용해

2021년 기준, 가장 많이 지출하는 항목은 장애인가구와 전체가구가 동일하게 '식료품', '기타', '주거비' 순서였다. 사람으면 장애·비장애를 떠나 우선적으로 소비하는 것은 똑같다는 말이다. 특이한 점은 장애가구의 소득이 더 적으니 항목별 지출 비용도 적게 나타나는 것이 상식적이지만, '의료비'에서만큼은 장애가구가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평균, 약 59만원을 더 사용하고 있었다. 의료비 지출의 비중은 평균 11.5%로 전체 가구의 평균 6.6%보다 4.9%p 더 높다. 반면 '교육비'는 장애가구가 약 162만 원을 덜 지출하고 있으며 전체 지출에서의 비중도 평균 7.5%로 전체가구의 평균 11.8%에 비해 4.3%p 더 낮다. 정리하자면 사람으로서 우선적으로 소비하는 항목의 순위는 같지만 장애가구는 전체가구에 비해 의료비를 더 사용하고 교육비를 덜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의 설명은 생략한다.

- 1) 식료품, 기타, 주거비가 높게 나오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 표현
 - 2) 장애인가구 5년 평균 의료비=234만원 / 전체가구 5년 평균 의료비 = 175만원을 표기 해서 그 차액(59만원)을 표현
 - 3) 장애인가구 5년 평균 교육비=151만원 / 전체가구 5년 평균 교육비 = 313만원을 표기 해서 그 차액(162만원)을 표현
- 식료품비: 외식비(식당, 패스트푸드, 주점, 커피숍 등)를 포함한 비용
 - 주거비: 월세, 주거관리비, 수도료, 전기료, 난방비 등
 - 교육비: 보육비를 포함한 것으로, 정규교육, 어린이집, 학원이나 보습교육(사교육), 기타 교육등의 서비스
 - 의료비: 의약품, 외래의료 서비스, 입원서비스, 치과서비스 등
 - 교통비: 차량유지비(연료비, 수리비 등)나 대중교통비, 차량구입비는 제외
 - 통신비: 통신장비(전화기기), 통신 서비스(일반전화 요금, 휴대전화 요금, 인터넷 이용료) 등
 - 기타: 의류, 오락 문화, 가정용품, 가사서비스, 이·미용 서비스 등
 - 해당년도는 조사년도이며, 지출은 전년 기준 자료임
 - 연간 기준으로 평균 소비 지출액을 의미함
 -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2022), 「2022 장애통계연보」에서 재구성

편집자의 말

지금 소개한 인포그래픽 외에도 장애인 관련 통계는 수없이 많다. 한정된 지면에 중요한 내용만을 담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다. 모두에게 행복한 지표를 보여주면 더 좋을 것 같았다. 그러나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판단할 수준의 통계는 없었다. 일반적으로 통계는 과거의 결과를 참고하여 경향을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도구로 사용된다. 하지만 장애인에 한정해서는 과거의 결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해주는 도구였다. 물론 이는 편집자의 지나친 비약일 수 있다. 우리 사회는 분명 나아지고 있고, 사람들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으니까. 단지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환경의 개선 속도가 너무 느린 것 때문에 해보는 투덜거림이다. 아! 혹시라도 이 자료를 본 후에 장애인을 만날 경우 동정의 시선으로 바라보지는 말자. 그들이 원하는 것은 '동행'이지 '동정'이 아니다. ☺



걷는 방법이 달라 느리게 걷는 '나'

함미숙_지체장애

걷는 방법이 남들과 다르고 느리게 걷는 '나'는 지체 장애가 있는 50대의 직장인이다. 아이들의 든든한 엄마이면서, 가장이다. 장애는 있지만 어린 시절에는 쌍꺼풀 없는 동그란 눈에 호기심이 가득 찬『빨강 머리 앤』처럼 밝은 성격이었다. 그러나 사춘기를 거치면서 나의 장애가 정말 싫어 무척이나 힘들었던 적이 있었다. 밝았던 성격은 사라지고 사람을 기피하는 일도 찾았다. 특히 나와 비슷한 지체장애인을 길에서 마주할 때면 마비가 온 것처럼 그냥 서 있거나, 오던 길을 돌아서 다른 길로 가곤 했다.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두려웠고,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대학에 들어가 '다크호스'라는 대전지역 지체장애인 대학생 연합동아리에 가입하게 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나'로 변하였다. 이 동아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연합으로 구성되어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학습 도우미 역할을 하거나, 연합체육대회, 친목 도모 등의 활동을 하는 동아리였다. 나는 선배들의 끈질긴 가입 권유에도 막무가내로 도망 다녔는데, 딱 한번만 MT에 참석해보고 참여 의사가 없으면 그때는 절대로 권유하지 않겠다는 말에 속는 셈 치고 첫 MT를 가게 되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는 나와 비슷한 장애를 가진 선배들과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나의 장애에 대한 마음속 이야기를 할 수 있

었고, 쌓여있던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굳게 닫혀있던 나의 마음의 문은 스르륵 열리게 되었다. 장애인을 만나면 누구보다도 소심했던 나는 어느새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면서 '다크호스'의 회장까지 하게 되었고, 봉사활동과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독려하며 열심히 사람들에게 다가갔다.

이러한 변화 때문일까? "첫눈에 반했다"라는 남편의 고백을 과감히 받아들이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독려하면서도 나 스스로는 '내가 정말 결혼해 살림이나 할 수 있을까? 아이는 낳을 수 있을까? 낳아도 괜찮을까? 낳아서 잘 기를

수는 있을까?'라는 두려움에 움츠러들기만 했었다. 그러나 나는 다시 한번 용기를 냈고, 시어른들의 염려 가득한 반대를 거뜬히 물리치고 결혼을 감행했으며, 사랑스러운 아들을 셋이나 낳고 잘 살아가고 있다. 사춘기 시절의 나였다면 상상하지 못했을 일이었다.

나뿐만 아니라 장애가 있는 여성이라면 거의 모두가 결혼이라는 중대사 앞에서 같은 고민을 했을 것이고, 두려움에 고민이 많았을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서 많은 두려움과 마주칠 것이다. 나는 '장애'라는 말 앞에 한없이 작아졌다. 장애는 단지 불편할 뿐이지 잘못된 것이 아닌데 말이다. 큰아이를 낳고 몇 년 동안 육아에 전념하던 나는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면서 새롭게 일을 시작했고, 지금은 사회복지사와 장애인고용공단



에서 실시하는 직장 내 인식개선 강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직장생활과 강사 활동을 겸하고 있다.

지금 나는 매일 공주로 출퇴근하며, '상권 활성화사업단'에서 상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 시장과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곳에서 일하다 보니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 '몸도 불편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냐?'라는 시선이 나의 등을 따갑게 할 때가 종종 있지만, 나의 휠체어를 밀어주려고 다가오는 분들이 더 많다. 남들의 시선이 불편한 적도 많았지만 지금은 먼저 다가가려고 노력한다. 대학 때 동아리에서의 활동을 생각하면 그때 용기를 내 다가갔던 일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많이 바꾸었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의 마음을 열고 용기를 내 무엇인가에 도전해 보는 것은 새로운 '나'를 만나는 길이다. w

어깨를 나란히

이경희_지체장애

글을 써 달라고 했을 때 조금 고민을 하였다.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잠시 고민하다 ‘그래 여자로 그리고 장애인으로 살면서 내가 경험하고 느꼈던 것을 정리해보자’ 마음먹고 이렇게 몇 자 적어본다.

나는 청소도 정리도 잘하는 편이다. 화장도 잘하고 옷도 잘입는 편이다. 책도 많이 읽고 대학교도 다녔다. 거기다 나는 음악 전공한 사람이다. 그것도 피아노! 그리고 나는 머리카락이 길다. 보통 장애인은 머리카락을 기르지 않는다. 그 이유는 내 손으로 머리카락을 손질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머리카락도 길다. 어느 날 외출을 하기 위해 지하철을 타는데, 어린 여학생들이 화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때 나는 충격을 받았다. 나는 꿈도 못 꿀 일을 저렇게 어린 여학생들은 공공장소에서 하고 있었다. 한참 멎 부리고 꾸미고 싶은 나이에 나는 단 한 번도 못하고 살아왔다. 지금 생각하면 후회가 많이 된다.

여자라면, 아니 사람이라면 예쁜 옷, 헤어스타일, 화장, 악세사리 등 자신을 꾸미고 싶은 마음은 다 같을 것이다. 나는 왜 못했을까? 그 이유는 내가 장애인이기 때문이다. 몸이 불편하다는 것만으로 이유는 충분했다. 엄마가, 언니가, 아니 집에서 가족들이 반대를 했다. 펌을 하면 큰일 나는 일이었다. “가만히 앉아만 있는 사람이. 걸어 다니지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화장을 하고 머리에 펌을 하냐”하면서 반대를 했었다. 그래서 나는 하고 싶은 걸 거의 못하고 살아왔다.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 가족들은 왜 그렇게 반대를 했을까? 지금은 마음대로 할 수는 있지만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런지 하고 싶은 욕구가 나지도 않고, 욕심도 없어졌다. 꾸미는 것도 그 나이에 맞게 하고 살아야 하는데 하는 생각뿐이다. 나이, 성별, 인종 상관없이 장애로 인해 하지 못하는 것. 언니는 되고 나는 안되는 것. 난 평생 이런 차별을 이름표마냥 붙이고 살아왔다.

장애가 있어도 예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누리고 싶은 욕구다. 그 욕구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면 그것은 살아 있는 사람이 아닌 죽은 사람이다. 나는 살아 있는 사람이다. 살아 있기에 배우고, 익히고 가꿔야 한다.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그래야 어디를 가서도 비장애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가 있다. 비장애인들 속에서 그들보다 우리 장애인들이 더 많이 배우고 익히고 가꾸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래야 당당하게 세상 속에 말할 수 있다.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나의 친구 전동이

박천경_지체장애

나는 세 살 때 소아마비를 앓아 두 발로 걸어본 기억조차 없는 그야말로 장애가 너무 심한 중증 장애인이란 타이틀을 지닌 채 살고 있다. 그래서 나에게 외출을 한다는 것은 에베레스트산을 오르는 것만큼의 큰 도전과 같은 것이기에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면 외출이란 걸 할 수가 없었다.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한다거나 가족들 모임이 있을 때 나를 홀로 두고 식구들만 가는 것을 마음 아파하신 엄마는 오빠들에게 나를 등에 업고 가족 모임에 참여하도록 부탁하였다. 그것이 유일한 큰 외출이었다. 그만큼 나의 외출은 식구들에게도 나에게도 힘든 일이었다. 그런 시간을 30대 후반까지 살고 있었다. 가족들에게 폐 끼치기 싫어서 될 수 있으면 가만히 집에만 있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하며 살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전동 휠체어를 만났다.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다. 나에게 날개를 달아준 나의 친구 “전동이”(전동 휠체어의 애칭). 전동이가 나에게 온 후로 ‘외출’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나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난 누구의 도움 없이 당당하게 어디든 갈 수 있는 능력자가 되었다. 다만 편의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이 상당히 많아 울컥 솟아오르는 서러움을 느낄 때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전동이만 있으면 든든하고 자신감이 솟는다. 장애로 인해 못다 한 공부에 아쉬움과 한 이 많았는데 전동이를 만난 이후 장애인 야간학교를 다니며 검정고시로 중고등 과정을 패스하고 사이버대 복지학과 4년 과정을 졸업했다. 그리고 공부하는 사이사이 인권강사 양성과정 교육을 여성장애인연대에서 수료하고 인권 강의를 하러 다니는 강사가 되었고 직장인으로서의 당당한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예전의 나는 항상 무언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마음으로 짓눌려 살았는데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직장인으로, 당당하게 변한 나의 모습을 보면 지금도 희열을 느끼며 환희가 벅차오른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열심히 여성장애인들의 마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픔과 기쁨을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 





이경애_뇌성마비

매일 연필 깍는 남자

처음 연필 잡고 이름 쓰던 날
 당신은 온 세상
 다 가진듯 환호했다
 뇌성마비로 연필 잡는 손이 불편해
 글자 몇 자에
 연필과 나는 눈물 흘리고
 그때마다 딸을 위해
 희망을 꼭 잡고 연필 깎으면서
 기도 하시던 당신
 다시 당신이 깎아준 연필로
 행복한 사랑의 편지를 쓰고 싶다
 내가 예쁘게 깎은 연필
 당신께 보여드리고 싶다. 

예쁜 다리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
 바지구멍 사이로
 빨간 장미꽃이 얼굴을 내민다
 젊은 맨 창피해
 얼른 일어나 아프지 않은 척
 양상한다리
 원망하고 미워했다
 지금 나이드니
 창피함은 저멀리
 자리에 앉아 상처살피고
 힘든 다리 토닥인다
 넘어져 피가 흘러도
 아파도 끝까지가는 거야
 상처투성이
 나의 예쁜 다리야. 

나의 꿈은 예술가

김순자_지체장애

나는 미혼의 마흔두 살 여성장애인입니다. 열아홉 살에 류마티스에 속한 전신경화증 질환으로 모든 관절이 굳어지고 변형이 되어 활동하는 모든 영역에서 불편함을 겪는 지체장애인인 되었습니다.

아픔으로 인해 변화된 나의 얼굴과 몸. 그리고 모든 생활들이 엉망이 되면서 초라해진 내 모습을 바라보는 남들의 시선이 너무나 싫어서 외출도 삼가게 되었고, 우울증까지 찾아와 매일 늘어나는 짜증과 함께 눈물로 지냈습니다. 있다없다 반복되는 통증 때문에 무기력한 20대를 보내고 30대에 들어서니 이런 삶을 사는 내가 싫고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욕구가 강렬해졌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얼까? 걱정과 고민을 하며 배울 곳을 찾아보기 시작하여 복지관, 장애인 단체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배우며 즐겁게 문화예술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활동 할 수 있게 된 것은 같이 사는 가족의 도움과 장애인 활동지원, 교통약자 지원을 통해 움직일 수 있었고 배울 기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도 장애인이 된 충격으로 마음이 단단히 닫혀서 집에만 있던 나였지만 어렵게 나마 한 걸음을 떼었더니 부정적이었



던 마음도 조금씩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자신감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활력소가 되어 건강도 점차 좋아져 더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 없었다면 저는 어떻게 살고 있었을지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옆에서 힘이 되어준 가족이 있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잊어버린 내 안의 나, 새로운 나를 찾았습니다.

배우고 있는 것 중 나를 가장 즐겁고 행복하게 하고 있는 것은 그림과 캘리그라피, 합창단활동입니다. 장애인 작품 대전에 나가서 입상도 하고, 합창단 대회 및 장애인 창작뮤지컬로 무대에도 서보는 설레임을 경험했습니다. 경험들을 쌓으며 그것이 나의 꿈이 되었습니다. 예술인이 되는 것! 하지만 예술인

‘꿈은 크게 가져라!’
‘예술을 즐기며 행복하게 살자!’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다.
꿈만 꾸어도 행복하다’

이 되기엔 재능이 턱없이 부족한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자주 듭니다. 그때마다 저는 ‘꿈은 크게 가져라!’ ‘예술을 즐기며 행복하게 살자!’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다. 꿈만 꾸어도 행복하다’ 라고 다짐합니다.

아쉬운 것은 대전에 장애인 예술인이 그 재능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합창 공연을 몇 회 했으나 공연할 곳의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항상 중요한 일이었고, 그나마 편의 시설이 잘 되어 있다는 몇몇 곳에서 공연을 해봤지만 항상 고충이 있었습니다. 예술을 꿈꾸는 장애인들이 맘껏 설 수 있는 무대가 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살포시 띠워봅니다. 더불어 나의 꿈도. 

마음과 마음 사이

윤선영_지체장애

17살 어느 가을날이 끝나갈 무렵. 오늘이 지나면 어제는 꿈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나에게 찾아온 질병, '진행성 골화성 섬유형성 이상'. 생소한 녀석이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뼈의 감옥'이라고도 부른다고 했다. 처음엔 절뚝이는 수준에서 몸의 변형이 오고 틀어짐이 일어났다.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이 내가 사라질 때까지 쳐다본다는 걸 알게 된 순간, 나는 사람들 시선에 갇혀 버렸고, 매사에 부정적인 모습으로 바뀌어 져 갔다. 어느 날 길을 걷다 육교를 올라가는 데 육교 위에서 친구들과 놀던 한 아이가 "도와드릴까요?" 하며 손을 내밀었지만 나는 괜찮다고 했다. 그리고 집에 와서 한참을 울었다. 그렇게 나중에 걷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열심히 걷기를 하면서도 내 몸에 꽂히는 타인의 시선을 쉽사리 떨쳐 버리지 못했으며, '장애'라는 두 글자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 단어가 삶의 자체를 바꿔 버렸었다. 모든 걸 가져가버린 것 같았다.

그러나 장애인자립센터를 만나고 장애인 콜택시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동에 대한 자유를 갖게 되었다. 그러면서 장애를 받아들이는 마음을 배우게 되었다. 자조모임, 체험 흙, 여행, 교육, 동료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

램에 참여하며 배우고 습득하면서 자존감이 향상되어가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여 자립이라는 두 글자를 떠올리며 다시 꿈을 꾸게 되었다. 나와 비슷한 처지의 장애인들을 마주하면서 그들이 자신의 역량을 키워가는 모습에 큰 힘을 얻을 수 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받았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질한다 못한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을 하게된 시작점이었다.

나는 장애인에게 지원기관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중증장애인의 경우엔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조차도 기관을 통해

성장했고 그 이전에는 자립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보지 못했으며 자립은 비장애인의 것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이다. 무작정 혼자 사회로 나오려고 했을 때는 생각했던 것보다 큰 상실감과 마주했던 나날들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요즘은 우리는 모두 같은 사람일 뿐 장애는 그저 그 사람의 사용설명서라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장애라는 두 글자를 가리기 위해 애써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어렸을 때 세상은 놀이터라고 어느 책의 구절에서 보았던 기억이 있다. 지금은 너무 커버려 세상이 정글처럼 느껴질 때가 더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세상은 내가 바라보는 시선과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고 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가끔은 쉬어가도 괜찮아'로 또 지금은 '살고 싶다'로 바뀌고 있다. 장애인이라서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도움이 필요하다. 다만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을 뿐이다. 그렇게 열일곱 소녀는 어느새 서른 여섯살이 되었고 여전히 성장중이다.

걷는 일을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해준 주변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우영우를 만나기까지 50년이 흘렀다

김순조_「여성이 행복한 도시, 대전」편집위원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1972년 저녁마다 장애인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드라마에 온 국민이 빠져 있었다. 화제의 드라마는 KBS에서 방영하던 '여로' 와 MBC 드라마 '백치 아마다'였다. 텔레비전이 귀하던 시절, 사람들은 서둘러 저녁을 마치고 텔레비전이 있는 집으로 모였다. 7시 20분부터 40분까지 방영하는 여로를 보기 위해서였다. 그로부터 두 시간 후에는 백치 아마다가 방영됐다. 주인의 눈치를 보며 앉아 있던 객들은 주인의 한마디를 기다렸다. "아마다도 보고 가유" 객들은 기다렸다는 듯 "그럴까유?" 하면서 두 시간을 버티다 아마다마저 보고 나오면 그날 하루 일과는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었다.

시청자들은 '여로'의 남자 주인공 발달장애인 영구(영구 캐릭터는 후에 개그 소재로 사용됐다.)로 인해 웃었고 '백치 아마다'의 청각장애인 아마다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반세기 전 드라마 속 장애인들은 희화화 되어 웃음거리의 소재가 되거나 아니면 강자로부터 핍박을 받으며 시청자들의 눈물을 쏙 빼놓는 동정 유발론자들이었다. 그 시대는 그게 당연한 일인 줄 알았다.

반세기가 지난 2022년 올해, 장애인이 등장하는 드라마 두 편이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였다. 이 두 드라마는 등장하는 장애인들이 여성이라는 공통점과 함께 장애인 드라마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눈길을 모았다.

우리들의 블루스에서는 실제 장애인 배우들이 극 속 장애인을 연기했다. 다운증후군 배우 정은혜 씨와 청각장애인 배우 이소별 씨가 등장해 멋진 연기를 선사하며 안방 드라마에서 장애인 배우의 입지를 다졌다. 노희경 작가는 '외국에선 장애 연기를 장애인이 직접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우리나라에는 그러지 못한지'를 고민해 오던 중 1년 가량 은혜 씨를 직접 만나 영희라는 캐릭터를 만들고 출연시켰다고 한다. 극중에서 영희로 나오는 정은혜 씨는 드라마 출연으로 유명인사가 되었다. 아직은 장애인 배우가 영화나 드라마에 출연하는 것이 낯선 우리 제작 환경에서 정은혜 씨의 드라마 안착과 인기는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 배우의 등장을 예감케 한다.

올해 최고의 드라마를 꼽으면 단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다. 3년째 코로나로 인해 우울이 드리워진 일상에서 오랜만에 밝고 따뜻한 드라마를 보

면서 힘을 낼 수 있었다. 자폐스펙트럼을 가진 주인공 우영우는 '우영우 암이 를 넘어 우영우 충전'이라는 유행어가 나올 정도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우영우는 기존 드라마와는 확실히 달랐다. 그동안 나왔던 드라마 속 여성 장애인들은 타인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수동적인 비운형,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형, 이야기를 재밌게 이끌기 위한 구색 맞추기형 정도의 위치에 머물러 있었다면 우영우는 드라마 전체를 이끌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동적 여성 장애인 주인공이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 과정이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고 재미있었다는 사실이다. 자신의 장애상태를 어느 때든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영우는 삶에서의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며 아버지에게도, 사랑하는 남성에게도 의존하지 않으려 한다.

아버지의 영향으로 대형 로펌회사에 입사하게 된 것을 알게 된 우영우는 "좌절해야만 한다면 저 혼자서 오롯이 좌절하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매번 이렇게 제 삶에 끼어들어서 좌절까지 막아주는 것은 싫습니다."라는 명대사를 날린다. 장애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소재로 한 10회에서는 자적장애인 신혜영을 찾아가 "신혜영 씨가 경험한 것이 사랑이었는지 성폭행이었는지 그 판단은 신혜영 씨의 몫입니다. 그걸 어머니와 재판부가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제3자가 모든 정황을 파악해 성폭행이었다 주장하더라도 당사자가 당시 느꼈던 감정이 사랑이었다면 사랑이라는 우영우의 메시지는 우리 사회에 장애인의 성적 결정권에 대한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기에 충분했다.

물론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거의 판타지에 가까운 우영우라는 인물을 보며 자폐자녀를 키우는 많은 부모님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졌을 것이다. 또 일부에서는 우리들의 블루스처럼 실제 자폐 장애를 지닌 배우가 우영우를 연기했더라면 더욱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표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찌됐든 여성 장애인 주인공 드라마가 시청자들에게 공감을 사며 큰 인기를 모았고 그에 힘입어 비장애인들로 하여금 장애인을 새로운 시각과 이해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한 공은 이 드라마가 한 큰 일이었다.

여성 장애인이 드라마에서 당당히 자기 목소리를 내기까지, 그걸 시청자가 받아들이기까지 50년의 시간이 흘렀다. 더 이상 후퇴는 없기를 바라며 우영우 시즌 2를 기다려본다.

어떤 하루

서한나_「여성이 행복한 도시, 대전, 편집위원」

여성장애인의 성적자기결정권¹⁾은 자유와 보호라는 대립구도 아래서 논의된다. 문제는 모든 국민에게 헌법에 근거해 보장된 이권리를 여성장애인의 경우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한 달간의 외출 빈도를 조사한 결과 “여성장애인은 매일 외출한 경우가 59.9%로 남성 장애인(77.7%)에 비해 적었고, 거의 외출하지 않는 경우는 5.9%로 남성장애인(3.5%)에 비해 더 많았다. 여성장애인의 외출의 주된 목적은 산책·운동(30.6%)으로 남성 장애인의 통근·통학(47.6%)과 차이를 보였다.”²⁾

“낮에 부모는 일하러 가고 혼자 시간을 보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립기도 하니까 밖에 나오시는 거죠. 그럴 때 가해자가 한두 마디 말을 걸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준다고 느끼니까 경계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³⁾

협박과 폭행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성범죄로 인정받기 어렵다. 2017년부터 3년간 발생한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2,432건. 이 가운데 여성 비중은 92%. 유형으로는 강제추행과 강간의 비율이 높으며 피해자 연령은 20대 700여 건, 미성년자 580여 건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성장애인의 파트너를 자유롭게 물색할 수 있는가? 상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가? 원치 않는 상황에 놓였을 때 거부할 자유가 있는가?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원의 합리적인 판결을 기대할 수 있는가?

시스템이 부재한 곳에서는 개인의 선의가 큰 역할을 한다. 시스템이 아닌 타인의 선의에 기대어 자립해야 할 때, 여성장애인은 무성을 강요받기도 한다. 여성청소년은 선생님으로부터⁴⁾

“너는 차라리 생리를 안 했으면 좋겠다” 같은 말을 듣는다.

여성장애인의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나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성장애인의 우정의 상대를 선택하고 키워나갈 수 있는 자유는? 프라이버시를 지키며 이동할 자유는? 취미를 즐길 자유는?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 자유는? 비장애인 남성 중심으로 짜여진 세상에서 여성장애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모든 삶의 국면에서 여성장애인의 입장장을 묻는 일이 필요하다.

이인원 소장은 어릴 때부터 당사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교육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법을 익힐 수 있게 작은 단위부터 환경을 촨촘하게 만들어놓아야 하며,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여성장애인의 오갈 데 없는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을 막고 싶은 이들이 일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서로를 자주 만나며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여성장애인의 일할 권리, 마음 맞는 사람과 함께할 권리, 자신의 공간을 가질 권리, 자아를 탐색하고 구성할 권리, 인간답게 살 권리가 충분히 논의되고 고민되는 과정에서 성적자기결정권 역시 실현될 것이다. ⓧ

1) 자신의 판단에 따라, 타인에게 지배되거나 강요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로 성적 행동을 해나가는 것

2) 「여성 장애인의 실태와 정책과제」,『보건복지포럼』, 김 성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2018년 9월

3)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이건 피해자 특성을 모르고 하는 말이죠” 대전여성장애인연대 성 폭력상담소 이인원 소장 인터뷰『BOSHU』 11호 2018년

4) 유튜브 PRAN-프란, 2018년 4월 20일 “여성장애인은 생 리도 안 할 것 같아” 여성 장애인이 엄마가 된다는 것, <https://www.youtube.com/watch?v=vXdeZ7KVUpA>

어린이집 장애통합보육 경험을 통해 배운 진정한 통합

권순자_「여성이 행복한 도시, 대전」편집위원

큰아이 다섯 살 때였다. 어느 날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아이가 여섯 살 형이 때렸다고 이야기하는데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걸보기에 크게 다친 데는 없었으나 원치 않는 물리적 강제력을 느끼며 힘들었을 내면도 걱정되었다. 급기야 같은 일이 여러 번 반복되어 나중엔 “그 형 때문에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라는 말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상황으로까지 악화하였다.

아이가 속한 5세반 교실은 엄밀히 말해 다섯 살 아이들만 생활하는 게 아니었다. 아이가 4세부터 다닌 어린이집은 5세부터는 장애통합반으로 꾸려진다는 특징이 있었다. 아이를 때린 형은 6세 장애 아동이었고, 상담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그 아이가 6세 반에서 생활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 5세 반에 남을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다. 당시 원장님은 어린이집 보육에 있어 장애통합을 고수하려는 철학을 분명하게 설명하였는데, 그러면서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였다.

상담을 통해 폭력을 당한 아이의 안위보다, 폭력을 행사한 아이의 현재와 미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어린이집의 입장을 확인해 느끼면서, 나는 내가 충분히 지니고 있다고 여긴 세상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점점 더 멀어지는 기분에 휩싸였다. 어린이집이 고수하는 철학에 대해 처음부터 알고 그에 동감하며 아이 보육을 맡겼으나,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일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다. 시시때때로 폭력을 행사하는 아이, 그리고 그 아이가 장애아동이라는 사실로 인해 더 힘들다는 모부의 삶을 이해해달라는 말까지 듣고 나서는 공감도 되었지만, 맞고 온 자식을 둔 양육자 입장에서 치미는 부당함을 끝내 참을 수가 없었다. 만약 때린 아이가 장애 아동이 아니었다면 어린이집의 대처는 어떠했을 것인가를 생각하며 복잡한 내적 갈등에 휘말렸다.

무조건적인 이해가 가능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보통이 아닌 성인(聖人)의 경지에 이른 사람일 것이다. 대부분은 다른 입장에 놓인 존재에 대한

이해를 끊임없는 노력으로 일군다. 양육자로서 부당함을 표출하는 것만으로, 양육자들끼리 사과와 합의를 하는 것만으로, 혹은 둘 중 한 명이 어린이집을 그만두는 것만으로는 진정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 어린이집을 통해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한 아이의 삶에 향후 또 다른 상황에서의 폭력이 없으리라는 확신, 장애통합반에 속해있다는 이유로 장애 아동에 대한 무조건적 이해를 해야 한다는 관념, 또 그게 가능할 것이라 환상 모두 어딘가 잘못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보육으로 관계 맺은 모두가 노력하지 않으면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문제 해결은 가능해 보이지 않았다.

고민 끝에 어린이집에 제안한 것은 진정한 통합을 위한 노력이다. 장애통합반을 운영하며 장애 아동에 대한 동정심이나 무조건적인 이해만을 강조하지 말고,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건강하게 소통하며 진정으로 가까워질 수 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다행히 선생님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두 아이는 폭력 없이 잘 지낼 수 있게 되었다. 공룡에 대해 잘 알고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다는 공통점을 살려 활동하는 시간을 함께 자주 가지며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알림장에는 두 아이의 편안한 모습이 담긴 사진이 종종 담겨 있었고, 귀가한 아이에게 어린이집에서의 생활을 물으면, “정민이(가명) 형이랑 공룡 그리는 게 재밌었어.”라는 대답이 자주 흘러나왔다. 아이가 속한 반의 모든 원생은 취학 전 졸업할 때까지 별 탈 없이 행복했다. 나는 해마다 열리는 어린이집 행사에서 무대에 나와 동생들과 함께 노래하는 정민이를 보며 우는 정민이 엄마를, 졸업식 날 또 하염없이 우는 정민이 엄마를 바라보며 나도 모르게 떨어지는 눈물을 들키지 않게 몰래 닦아내곤 했다. 아이들만큼 가까워지진 못했어도 더는 얼굴 붉히지 않고 마주할 수 있게 되니, 그제야 장애아동을 둔 엄마의 마음이 내게도 조금 와닿았던 것 같다.

장애아동의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신념이 보육에 반영된 ‘장애인통합보육’을 실천하는 보육 기관에서 비장애아동의 권리가 배제당할 뻔했던 이 글의 사례는 나와 다른 입장, 그러니까 장애 아동 모부의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이해하고 존중하기 위한 사회의 노력이 어느 한 쪽의 무조건적인 이해를 담보 삼아 실행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 함께 살아가는데 필요한 사회적 실천인 다른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일, 즉 ‘통합’은 서로가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소통한 결과여야 한다. 

1) 장애통합보육은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함께 생활하며 편견 없이 서로를 이해하고 사회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시행하는 교육이다.

2) 이 글은 모든 장애 아동이 폭력과 관계있다는 논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님을 밝힌다. 또한 이 글에서 등장한 사례가 장애통합보육 전체의 현실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점을 바탕으로 독해하기를 권한다.

섬섬옥수

이유진_「여성이 행복한 도시, 대전」편집위원

2020년 장애인 실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장애인 수는 262만 명에 달한다. 이는 100명 중 5명이 장애인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비장애인의 삶, 학교나 직장에서 100명 중 5명이 장애인인 경우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특히 여성 장애인의 경우, 남성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40.7%인 것에 비해 18.7%로 매우 낮다.¹⁾

대전역엔 당일 기차표만 있다면 네일케어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섬섬옥수'가 있다. 대전역의 섬섬옥수는 2021년 4월 문을 열었다. 섬섬옥수에선 네일케어 기본 교육을 무료하고 전문자격을 취득한 여성 장애인이 근무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선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청각장애인 네일케어 서비스 앱'을 출시하고 테블릿 PC를 지원했다. 섬섬옥수에 방문한 고객이 관리를 받다가 문제가 있는 경우, 테블릿 PC를 터치하면, 진동을 통해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필담 등을 통한 소통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당일 열차승차권을 소지하고 있다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섬섬옥수'. 미리 예약하지 않고 현장에 방문하여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예약자가 있을 경우엔 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 손톱 관리와 영양까지 약 30~50분 정도가 걸리므로 열차 출발시간에 어느 정도의 여유를 두고 예약해야 한다.

현재는 용산역, 대전역, 울산역 등 전국에 6개의 섬섬옥수가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전국 10개 역사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한다. 익산역과 울산역의 섬섬옥수는 손톱관리 뿐만 아니라 네일아트도 가능하다고 하니 다음 기차여행 때에는 기차 시간에 맞춰 섬섬옥수에서 산뜻한 기분으로 여행을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착하고 친절하면서 장애인과 생활해본 적 없는 사람보다 나와 1년 함께 생활한 친구지도 나쁘지도 않은 친구가 나를 더 편하게 대해준다. 그 이유는 교육을 받아서도 아니고, 장애인이 나오는 드라마를 시청해서도 아니고, 그저 함께 생활하는 것만으로 서로를 알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 김지우, '하고 싶은 말이 많고요, 구릅니다' –



출처: 유튜브 크랩(KLAB)

섬섬옥수

운영시간

평일 오전 10:00 ~ 오후 6시
(점심시간 오후 1시 ~ 2시)

예약방법

카카오플러스친구 '섬섬옥수'

1) 보건복지부, 2020 장애인 실태조사

장애인과 가족의 자유롭고 당당한 삶을 위해 _

장애인부모회

이옥주_대전장애인부모회 회장

상담·지원신청: 042-488-1341 / dpsd9457@hanmail.net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704호

장애라는 영역은 다소 우울하고 피하고 싶은 영역이지만
우리 사회 안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북유럽이나
선진국일수록 장애인의 비율이 높다고 한다. 이것은 장애를
이해하는 관점이 의학적인 결핍에서 점차 사회적인 불편함의
관점으로 옮겨가기 때문이다.



장애는 대부분 노화와 사고 등 후천적인 원인을 가진 사례가 많지만 선천적으로 태어나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 돌봄이 필요한 이들도 많다. 장애인의 돌봄은 관습적으로 가족, 특히 여성의 몫이었다. 장애인부모회도 사실 부모회지만 많은 부분 장애인어머니회 같은 느낌도 든다.

대전광역시 장애인부모회(이하 부모회)는 설립된 지 올해로 31년을 맞았다. 30년 전에 비해 지원정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지만 아직도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통합되어 살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기에 부모회의 역할은 더 커졌다. 부모회는 대전시에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위탁 받아 장애인 가족의 가족기능 보호와 역량 강화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동료상담” 프로그램이다. 그저 같은 처지의 장애인 부모로서 맞장구쳐주는 수준이 아니라 10년 정도 꾸준하게 수퍼비전과 훈련을 받은 상담가 부모들이 후배 부모들에게 정서적 지원과 정보제공으로 큰 힘이 되어 주려고 노력한다. 또 필요한 가정에 “사례관리” 지원, 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다. 예를 들면 부모교육, 비장애인형제프로그램, 가족들의 동아리 활동지원, 부모교육, 체험활동 같은 것들이다. 그 중에서도 장애자녀를 둔 기혼여성들의 자조모임인 “가족세우기” 팀은 10년 이상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면서 공동 김장, 요리, 체험, 문화활동 등을 이어 가고 있다. 발달장애 당사자 청년들의 자조모임들도 몇 년째 활발하게 활동을 해 왔다.

부모회가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일 중 하나는 보건복지부에서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가족 양육지원사업”이다. 자녀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부모는 혼들릴 수 밖에 없다. 이럴 때 훈련된 돌보미를 파견하거나 휴식지원을 통해 가족에게 힘을 주는 사업으로서 부모회는 3년 연속 전국 최우수, 우수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은 지역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성인이 되어도 부모가 계속 돌봄을 지원해야 하는 영역은 발달장애인이다. 법원으로부터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특정한 사무의 처리나 재산관리, 신상보호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후견인을 선임해 주는 제도가 공공후견제도인데 부모회는 2016년부터 우리 지역의 공공후견법인으로 지정 받아 공공후견인 양성, 후견인 선임 및 직접 법인후견지원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과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아 성인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시간 활동과 발달장애 학생들의 방과후 활동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려고 한다.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대전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부모회에 위탁한 “가족휴식지원사업”은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다. 엄두가 나지 않아 실행하지 못하던 가족여행을 부모회의 지원을 받아 다녀왔다고 연신 고맙다고 하는 가족들의 인사를 받을 때 같이 일하는 직원들은 큰 보람을 느낀다. 연간 50가족 정도가 지원을 받아 여행을 간다. 부모회는 보호작업장과 주간보호센터, 공동생활가정 같은 부설기관들도 운영하고 있다. 모든 시설이 도토리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부모회 설립 초기 활동가들의 이름과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또 시간제 일자리인 복지일자리 사업을 통해 직업 연계에도 앞장서고 있고 직접 운영하는 카페, 매점 등에서도 장애인 직원을 직접 채용함으로써 우리 자녀들이 지역사회에서 통합되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반을 넓혀가고 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사는 어떤 부모도 “자식보다 하루 더” 같은 우울한 말은 하지 않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이 작업장이나 시간제 직장에 다니고, 주간 활동센터에서 활동하고,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공동주택이나 지원주택이나 개별 주택에서 사는 모습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부모회도 힘을 보태고자 한다. ‘부모’라는 이름은 굳건하다. ☺



영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스크린샷.

영화 속 여성과 장애

‘장애’가 장애가 되지 않는 사랑은 가능한가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

지나라_스토리콘텐츠 말·글 대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입니다. 가부장적 문화가 남아있는 사회에서는 여성 장애인에게 또 하나의 폭력이 추가 됩니다.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 그런 이중의 차별을 영화에서 온전히 담아내긴 쉽지 않습니다. 설경구·문소리 주연의 「오아시스」에 대해 장애인 인권옹호를 위해 앞장선 사람들 조차 “이 영화는 (현실과 동떨어진) 판타지”라며 불편해했던 점을 상기 한다면, 여성 장애인을 다룬 영화는 만들기도, 언급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잔잔한 사랑 이야기로 녹인 사회적 차별

그런 점에서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2004)는 영리한 전략을 구사한 영화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를 (여성)장애인의 현실을 고발하거나 차별 문제를 다룬 작품으로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남녀가 만나고, 사랑하고, 헤어지는, 너무도 평범한 '사랑 이야기'로 우리는 그 영화를 기억합니다.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시대의 상처가 고스란히 녹아 있는 인물이나 소재를 다루는데, 그 상처가 확연히 드러나는 작품과 그 상처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보게 되는 작품. 둘 중 어느 것이 더 잘 만든 작품(영화, 혹은 소설)일까요? 다만 평론가 신형철의 “그 소재(주제)가 무엇이건, 도대체가 미학적으로 태만한 작품은 용호할 수가 없다”는 말에는 대체로 동의합니다.

주인공 조제는 여성 장애인입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두 다리를 쓰지 못합니다. 그런 조제는 세상과 단절한 채 할머니와 단둘이 살아갑니다. 그런 조제 앞에 우연히 츠네오가

등장합니다. 조제와 츠네오는 서서히 가까워집니다. 여느 연인들처럼 함께 식사하고, 거리를 걷고(츠네오가 조제의 유모차를 밀며), 사랑을 나누게 되죠. 둘 사이에 조제의 장애는 전혀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조제는 원래 바깥세상을 그리 두려워하지 않는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편견이 그것을 강요한 것인죠.

대표적인 인물이 영화 속 조제의 유일한 가족이자 보호자인 할머니입니다. 츠네오와 가까워지는 조제에게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제를 알아야 한다.” 조제와 함께 다닌는 츠네오를 보고 사람들은 “기특하다”, “봉사정신이 투철하다”는 인사를 건넵니다. 조제의 성격은 츠네오의 옛 애인 가나에를 만나는 대목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가나에는 조제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네 무기가 부럽다.” 그런 가나에를 향해 조제는 담담히 답합니다. “그럼 당신도 다리를 잘라.”

“
다른 건 아무것도 없다.
오직 당신의 시선만 다를 뿐.”

“

다른 건 오직 당신의 다른 시선 뿐

조제와 츠네오는 동물원에서 호랑이(무서워했던 대상)를 보고 물고기(동경했던 대상)를 보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든 뒤 이별합니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냥 헤어진 거죠. 모든 연인이 헤어지는 데 특별한 이유가 있던가요? 츠네오는 이렇게 독백합니다. “담백한 이별이었다. 여러 이유를 댈 수 있지만, 단 하나뿐이었다. 내가 도망쳤다.” 츠네오는 마치 출근하듯 나서고, 판자촌에 남은 조제는 처음으로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보지 않고 뭔가 다르다(혹은 달라야 한다)는 생각에서부터 편견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여성, 장애인, 혹은 여성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차별에 관해 목소리를 높이는 대신 독백하듯 잔잔하게 말합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다. 오직 당신의 시선만 다를 뿐.” 그래서 이 영화가 (여성)장애인의 차별에 관한 영화가 아니라 잔잔한 사랑 이야기로 오랫동안 기억되길 소망합니다. 영화 「브로크백 마운틴」이 동성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고발한 영화가 아니라 잊지 못할 러브스토리로 기억되는 것처럼 말이죠. 부디 조제가 더 좋은 인연을 만났기를….■





연극 ‘진희의 꿈’

이유진_‘여성이 행복한 도시, 대전」편집위원

박진희. 나는 2남 2녀 중 넷째입니다.
어릴 때 경기로 인해 뇌성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엄마와 형제들의 사랑과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세상에 태어난 진희.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엄마의 사랑이 있어서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어느덧 국민학교에 갈 나이가 된 진희는 언니 오빠들처럼 학교에서 공부할 생각에 들뜨는데
국민학교에서 장애인은 받아주지 않는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듣게 된다.
원하는 것은 이뤄내고야 마는 진희는 공부를 위해 집을 나와 시설에 입소하게 되는데
집 밖 세상은 어느 것 하나 호락호락하지 않다.
험난한 사회 위에서 꿈을 위해 아장아장 느릿느릿.
모진 풍파에 치고 꿈에 달았을 무렵, 진희는 인생을 알게 된 중년에 다다른다.



팀 오토(Owtto)
문의/제작 Owtto0@gmail.com 인스타그램 @owtto0





연극 '진희의 꿈'은 자전공연 형식의 치료적 공연으로, 지난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대전 이음아트홀에서 무대에 올랐다. '치료적 자전공연'은 참여자의 삶에 초점을 맞춰 공연을 제작하는 연극치료 기법 중 하나로, 참여자가 직접 주인공으로 무대에 서서 자신의 삶의 이슈들을 연극으로 풀어낸다. 이를 통해 공연을 보러 온 불특정 다수의 관객들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얻는 경험을 하며 마음의 병을 치료한다.

연극 팀 '오토'는 올해 5월 연극의 주인공을 공개적으로 모집해 진희 씨를 만났다. 진희 씨는 연극이 하고 싶다고 했다. 팀 '오토'는 진희 씨의 삶 전반을 연극치료 작업을 통해

둘러보고 그것을 한 편의 연극으로 대본화했다. '관계 형성 및 동맹맺기, 유년기 둘러보기, 삶의 풍경 그리기, 남은 인생 채우기'라는 과정을 거쳐 완성된 연극엔 '진희'의 삶, 마주한 사회의 벽,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원하는 꿈이 담겨 있다.

'진희'는 유년기부터 청소년기, 성인기까지의 과정을 연극으로 되짚어간다. 가족들과 함께 지냈던 어린 시절과 공부가 하고 싶었지만 '국민학교'에선 장애인을 받아주지 않아 감옥 같은 시설에 들어가게 된 이야기. 그리고 시설에서 나와 겹정고시에 도전한 이야기,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했지만 여리 부당한 대우를 받은 이야기까지 관객들은 '진희'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며 기쁨과 분노를 함께 느끼게 된다. 마지막으로 '진희'는 찜질방 가기, 분홍 드레스 입기, 모델, 운전하기, 바닷가에서 엄마랑 조개 줍기, 스카이다이빙, 댄스 스포츠, 자서전 완성하기 등 버킷리스트를 연극 안에서 하나 하나 이루어가고, 관객들은 '진희'의 행복을 함께 느낀다. '진희'가 스카이다이빙을 하면 함께 뛰어내리는 듯 해방감을 느끼고, 댄스 스포츠를 하면 함께 리듬을 타며 신이 난다. '진희'의 남은 꿈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인 격 없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다 왔다! 혐난한 길이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어떻게 채우지?"라고 이야기하는 '진희'가 멋진 연극 '진희의 꿈'이었다. **w**

거북이가 넓은 바다 안에서는 생기를 가진 채로 파도와 함께 춤을 추고 있다는 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육지'의 모습일까요, '바다'의 모습일까요?
적어도 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인 사는 세상이 '바다'를 닮아 있기를 바라요.



'진희의 꿈' 주제곡 '거북이' 中
작곡·작사: 유진솔(싱어송라이터) 인스타그램 ujin_s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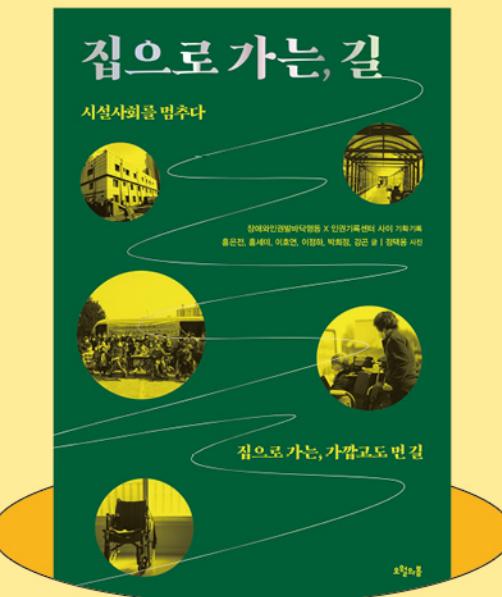
그들은 결국 집에 당도했다

김순조_「여성이 행복한 도시, 대전」편집위원

『집으로 가는 길』은 국내 최초로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인 향유의 집이 스스로 문을 닫고 그곳에서 살던 거주자들이 시설에서 나와 자립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상세히 담은 보고서이자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장애인 돌봄의 길을 안내하는 지침서이기도 하다. 우리는 우선 책 제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길'을 수식하는 '가는' 뒤에 왜 굳이 쉼표를 붙여야 했을까? 그 쉼표에는 참으로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야기의 실마리는 한규선이라는 중증 장애인이 제기한 장애수당 지급문제부터 시작된다. 백일 무렵 먹은 마음이 잘못 돼 뇌성마비를 얻은 그는 스물일곱 살에 베데스다 요양원에 들어왔다. 형님네 집에서 어머니와 살던 그는 조카들이 생기자 자의반 타의반 시설에서의 삶을 선택해야 했다. 멸시와 모욕, 격리, 감금, 구타가 횡행하는 '지옥 같은 그곳'에서 그의 삶은 미래에 대한 희망도 꿈도 가질 수 없었다. 대형 사회복지법인 석암재단은 연간 국고보조금만 70억 원이나 받는 재단이었지만 온갖 편법으로 설립자 일가의 재산을 불리며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비리의 온상이었다.

이곳에서 바른 소리 하던 규선 씨는 2006년, 우연히 장애인 개개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에 대해 알게 되고, 현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건복지부에 알렸다. 투쟁의 신호탄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장애수당을 받게 된 시설의 장애인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권리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2007년 규선 씨를 비롯한 거주자와 직원들은 힘을 합쳐 재단의 비리를 세상에 폭로했다. 이들은 시민사회 단체와 연대해 여기에서 죽으나 거리에서 죽으나 매한가지라는 생각으로 난생 처음 거리 농성에 들어 갔다. 투쟁은 비리 일가의 구속과 사퇴로 성공을 거둔다. 단무지, 물에 빠진 김치만 나오던 식단은 눈에 띄게 좋아졌다. 여기서 이야기는 끝날 것 같았다. 하지만 이들 거주자들은 좋아진 시설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투쟁을 위해 거리로 나섰다. 바로 탈시설, 자립생활이었다.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가 자립한다고?" "장애인이 혼자 살 수 있어?" "시설을 좋게 만들면 되는 거 아냐?" 등등 거주인들의 발목을 잡는 편견들에 맞서 규선 씨의 체험담 생활을 시작으로 베데스다 요양원 거주자 8명은 길게는 27년, 짧게는 2년간 거주하던 시설을 박차고 장애인 자립생활의 정당성과 필요한 요구조건을 내세우며 2009년 6월, 또 한 번 거리로 나섰다. 후에



집으로 가는 길

장애인권리옹호운동×인권기록센터 사이 기획·기록
홍은진, 홍세미, 이호연, 이정하, 박희정, 강곤글 / 정책용 사진
오월의봄

마로니에 8인방으로 불리는 그들이 어느 누구도 가지 않은 길로 발걸음을 뗀 순간이었다. 이들이 겪어야 했던 비리법인 세력들과의 투쟁은 물론 정책 입안자들의 안일함과 거주자들 간의 갈등, 임직원 간의 의견충돌 등 인권쟁취에서 시작해 결국 탈시설로의 방향 전환과 성공까지를 각자의 시각에서 풀어낸다. 각자가 내는 시냇물 같은 소리들은 결국 '실패한 자립은 없다', '좋은 시설은 없다'는 큰 목소리로 모아진다. 그 이후의 결과는 직접 확인해보길 권한다.

이쯤에서 책 리뷰를 마무리하려는데 지난 11월 2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탈시설 관련 향유의 집 관계자들을 불러 감사를 진행했다는 뉴스가 뜬다. 지난 정부는 2041년까지 보호시설 내 중증장애인 2만 9,000명을 지역사회로 돌려보낸다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탈시설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그들이 집으로 가는 길은 아직도 험난해 보인다. ⓧ

Book Review

하고 싶은 말이 많고요, 구릅니다

이유진_『여성이 행복한 도시, 대전』편집위원

유튜버 '구르님'이자 한국에 살아가고 있는 22세 여성, 대학생, 연극배우, 라디오 DJ, 아마추어 모델, 14년 차 휠체어 베스트 드라이버, 개 한 마리와 고양이 한 마리의 집사, 도시 생활자, 훨꾸(휠체어 꾸미기) 과몰입러, 미루기의 달인. '김지우'를 표현하는 많은 수식어 들이다. 그는 장애여성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일상을 담아낸 글과 영상에선 '보고 싶은 슬픔', '소진되기 쉬운 슬픔'을 전시하지 않는다.

유튜브에서 많이 소비되는 장애인 관련 영상으로는 대표적으로 '깜짝 카메라'가 있다. 일부러 위기에 처한 장애인을 연출하고, 그를 도와주는 행인이 있는지를 촬영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장애인은 도움이 필요한 약자로 대상화되며, 비장애인은 장애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영웅'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 '김지우'는 단호히 이야기한다. "글을 읽다가 자꾸만 울고 싶거나 성찰하고 싶다면 책을 덮고 잠깐 산책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장애인 대부분은 앞으로도 그 '고난'과 함께 살아갈 것이다.
장애는 이겨내는 것이기보다 익숙해져야 할 것이다. 시청자들의
바람대로 기적이나 극복이 실현되지 않을 때는
어떤 영상을 만들어야 하는가.
—본문 '보고 싶은 슬픔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 중에서—

유쾌하지만 묵직한 에피소드들이 많다. 멀겋거리는 미닫이문으로 겨우 가려져 있고, 청소도구함으로 쓰이던 학교의 '장애인 화장실', 운동장 구석 벤치에 앉아 있어야 했던 체육시간, 교실에 훌로 남아있어야 했던 비상 대피 훈련에선 교실로 돌아온 친구에게 "너...내가 보여? 난 죽었는데?"라는 농담을 던지기도 한다.

친한 친구들은 "불이 나면 널 업고 뛸게"라고 약속해주었지만,
불이 났을 때 날 구조해야 하는 책임을 친구가 져서는 안 될 일이었다.
혹 나와 함께 나오지 못했을 때 그 애가 갖게 될 죄책감도 그 애의 것은 아니었다.
—본문 '학교에 대한 단상' 중에서—

엄마 '현미', 아빠 '태균', 동생 '지원'으로 구성된 가족에 대한 이야기와 소아 재활 병동에서 장애아동을 온종일 돌보는 보호자는 대부분 엄마들이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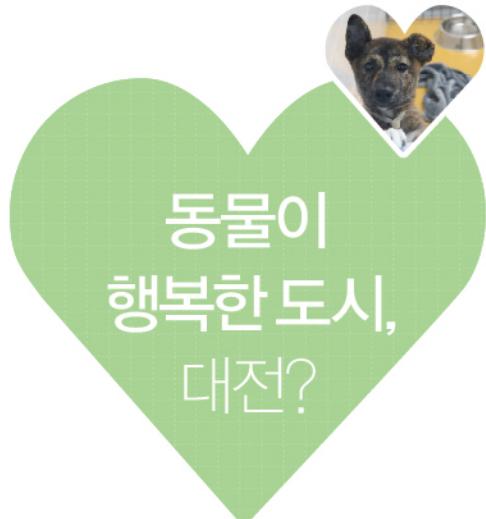
하고 싶은 말이 많고요, 구릅니다

휠체어 위의 유튜-비, '구르님'의 유쾌하고 뾰족한 말 걸기
김지우 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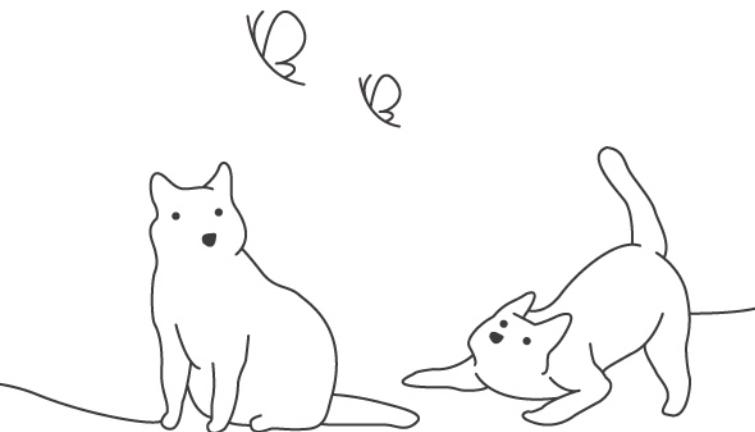
는데, 아이를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지곤 하는 여성들이 모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옮고웃는 병동의 이야기도 담겨있다.

'현신적인 태도의 능숙한 보호자' 역할을 해야 하는 20,30대의 여성들이 병실에는 너무 많았다. (중략) 현미는 망설이면서도, 마치 수련회에서 몰래 악식을 시켜 먹던 학창 시절 기억을 들어놓는 것처럼 말을 꺼냈다. 어두운 병원 로비에서 몰래 악식을 받아오는 현미의 모습이 그려져 나는 살짝 웃었다. 술을 뺏겼다는 부분에서는 저항 없이 깔깔 웃을 수밖에 없었다.
—본문 '보비스병원 골뱅이무침' 중에서—

구르고 굴러 영상을 찍다. 연극을 하고, 책을 쓴 '구르님'. 또 어디로 굴러갈지 계획은 없지만 구를 의지와 바퀴만은 탄탄한 '구르님'의 이야기를 많은 이가 편안한 마음으로, 흐트러진 자세를 고쳐 앓지 않고 펼쳐보았으면 한다. ☺



이유진_「여성이 행복한 도시, 대전」 편집위원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15% 정도가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있다고 한다.¹⁾ 7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이 있는 셈이다. 또한 남성 가구주(14.5%)에 비해 여성 가구주(15.8%)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비율이 높았다. '동물권 (동물도 인간과 동물한 생명권을 지니며 불필요한 고통을 피하고 학대나 착취 등을 당하지 않을 권리)'에 대한 논의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선 잔인한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뉴스가 끊이지 않기도 한다. 그렇다면 대전은 동물이 행복할 수 있는 도시일까?

#대전가족여행 #대전데이트코스 #악어쇼

'대전 가족여행 추천', '대전 데이트코스 추천' 등의 키워드로 홍보하고 있는 대전의 한 아쿠아리움이 있다. 이 아쿠아리움에선 국제적 멸종위기종 1급에 해당하는 '삼 악어'의 '악어 쇼'가 여전히 공연되고 있다. 조련사가 악어 사 이에서 전통춤을 추는 것으로 시작해, 악어의 입속으로 팔이나 머리를 집어 넣거나 꼬리를 잡아당겨 끌어당기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관람객 중 원하는 사람은 악어의 등에 올라타서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다. 악어쇼의 입장료는 아쿠아리움 입장료와 별도이며, 쇼가 끝난 뒤 1인당 1만원을 내면 악어 위에 앉아서 사진을 찍을 수 있다. 2016년 동물자유연대에서 악어쇼의 위험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항의하였으나, 현재도 악어쇼는 '촬영'만을 금지한 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대전반려동물공원

대전반려동물공원은 반려동물 놀이터와 잔디광장, 쉼터 등을 갖추고 있으며, 공원 내 반려동물 문화센터에는 샤워실이 있어 놀이 후 반려동물 목욕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카페 파트라슈, 동물행동교정실, 사회화 교육실, 미팅룸, 다목적실 등도 이용할 수 있다. 동아리실 대관 및 교육 프로그램 수강은 '대전광역시 OK예약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실내 놀이터와 야외 훈련장 외에는 반드시 목줄(2m 이내)을 착용해야 하며, 등록 대상 동물은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입장이 가능하다. 반려동물 및 13세 이하 어린이는 보호자 동행이 필요하며, 실내시설 이용 시 매너밴드 착용은 필수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고길 7

042-933-8111

1) 통계청, 2021 인구주택총조사 인구·가구 부문 표본조사

#대전동물보호센터

2021년 4월 대전동물보호센터가 유성구 금고동으로 신축이전했고, 22년 6월엔 대전 반려동물공원도 문을 열었다. 과거 대전동물보호센터는 유성구 갑동의 축사를 임대 사용하고 있었으나 이전과 함께 동물보호시설 및 동물 병원, 반려동물운동장, 입양 대기실, 미용·목욕실, 상담실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반려동물 입양을 원하는 사람은 대전동물보호센터 홈페이지에서 입양하고자 하는 동물을 확인한 뒤 센터에 방문해 입양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센터 방문 시 신분증과 목줄 및 리드줄, 이동가방을 미리 준비해야 하며 대리인이나 미성년자는 입양이 불가하다.

22년 4월부터 유기견 입양 희망자는 입양예정자 명의의 '반려동물 입양 예정자 교육'을 이수해야만 입양이 가능하다. 입양 전 알아야 할 준비사항부터 입양 후 건강관리, 사회화 교육, 동물보호법 관련 준수사항 등 유기견 입양자를 위한 기본 소양교육 및 기초상식 교육이다. 또한 대전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한 보호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공원 동물행동교육실에서 사회성 및 산책 훈련을 위한 그룹교육, 1:1행동 분석 및 교정교육도 신청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남구즉로 1234 ☎ 042-825-1118
 <https://www.daejeon.go.kr/ani>  @dj_animal_shelter_official

대전동물보호센터는 전국에서 손꼽힐 정도로 시설이 잘 갖추어진 유기동물 보호센터다. 그러나 같은 대전시 안에서는 여전히 '악어 쇼'가 공연되고 있다. 대전이 정말 '동물이 행복한 도시'가 되기 위해선 그저 귀여운 대상으로만 동물을 바라볼 게 아니라 하나의 생명으로 존중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이 확장되어야 동물학대의 현장을 마치 교육의 장인 것처럼 포장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대전시도 '악어 쇼'와 열약한 시설 속 동물들은 못 본 척하지 말고 촘촘한 개선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동물보호센터에서 가족을 기다려요



22-2-042 맞이5

진도 믹스 • 1세초정
수컷(중성화O) • 17.5kg
옅은 갈색의 눈과 황토색의 털이 매력적이다. 늑대처럼 늄름한 모습에 순둥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22-4-212 맞이3

믹스 • 5개월령추정
암컷(중성화X) • 7.65kg
활발하고 호기심이 많다.
사람을 좋아한다. 까만 눈과 흰발이 귀엽다.



21-3-076 맞이5

진도 • 3세초정
암컷(중성화O) • 26.5kg
듬직하며 사람을 좋아한다.
다른 동물과의 사회성도 좋다.



21-4-007 제임스

코리안숏헤어 • 3세초정
수컷(중성화O) • 5.02kg
오른쪽 앞다리가 없지만 활동적이고 사교적이다. 사람에게 부비부비하는 걸 좋아한다.

대전동물보호센터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보호동물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무해한 저항

권순지_「여성이 행복한 도시, 대전」편집위원



“
몸을 둘러싼 담론은
건강, 외모, 패션, 피부색,
키, 몸매, 장애 여부, 젊고
나이 들의 문제 등
여러 다양한 갈래로
뻗어나갈 수 있다.
”

인간의 몸은 그 삶을 담고 있다. 생물학적 육체로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용하고 무언가를 실천하며 외부와 연결되는 사회적 주체, 즉 몸은 자기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이며 사회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현상한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몸)’에 대해 생각하고 말할 때, 대부분 사회에서 규정하고 범주화한 틀에 빗대어 말하곤 한다. 예컨대 “나 좀 살찐 것 같아”라는 표현 속에는 정말로 체중이 늘었다는 사실도 있지만, 살이 찌서 불편하다, 살이 찌서 괴롭다, 남들 보기에 많이 풍뚱해 보일까? 언젠가는 꼭 살을 뺐어야 한다, 나는 내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등 여러 고통과 갈등의 의미가 중첩되어 있다. 여기서 살이 찼다는 기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또 체중 증가의 변화를 두고 왜 이토록 불편한 의미를 떨쳐내지 못하며 자기 삶을 만족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체중의 문제는 고통과 갈등의 ‘몸’을 말하는 데 있어 지극히 일부의 사례다.

몸을 둘러싼 담론은 건강, 외모, 패션, 피부색, 키, 몸매, 장애 여부, 젊고 나이 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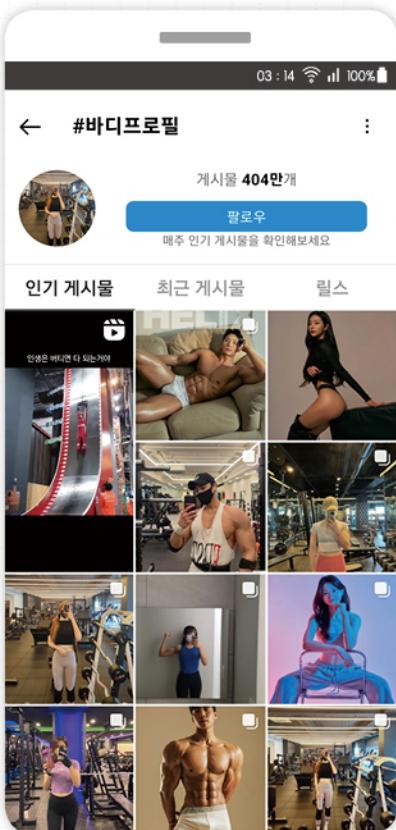
문제 등 여러 다양한 갈래로 뻗어나갈 수 있다. 개인의 역사만 되짚어 봐도 몸과 관련한 무수히 많은 경험이 교차하며 스칠 것이다. 그런데 이 경험을 이야기하자니 과거 사라져 없어진 줄 알았던 불쾌감이 엄습한다. 예를 들어 필자의 삶에서 까만 피부는 가족이나 친구, 동료들이 필자를 조롱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이유도 모른 채 유난히 말랐던 청소년기의 몸은 건강을 염려하는 이들에게 걱정의 대상으로, 성인이 된 이후에 지니게 된 통통한 몸은 자기관리가 필요한 완성되지 못한 몸으로 취급되었다. 대학 시절, 패션 브랜드의 값으로 ‘급’을 나누는 어느 선배의 일상적이고 집요한 시선에 불쾌감을 떨치지 못하는 일이 잦았고, 심지어 출산 이후에는 모유수유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 반대의 몸들에게 모성을 성취하지 못한 잘못된 몸으로 타자화되기도 하였다. 어째서 몸을 이야기하기 위해 꺼내지는 경험은 이렇게 타인의 시선에 의해 만들어진 불편한 기억으로 채워지는 것일까.

우리가 사회에서 자기를 나타낼 때 대부분의 상황에서 ‘몸’은 나를 설명하는 전부가 될

“

타인의 시선과 평가가
자기 삶을 꾸려나가는 데
영향을 끼치게 되는 불편한
사회적 과정은, 인간을
지배하는 뿌리 깊은
이데올로기가 어떠한지를
재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



404만개에 달하는 인스타그램 속 바디프로필 게시물
(출처-인스타그램 탐색 후 정리)

수 있는데 이때 타인의 '시선'은 내 '몸', 즉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된다. 우리 누구도 외부의 시선에서 완벽하게 벗어나 자기를 바라볼 수 없다. 몸은 자기 자신이면서 사회와 접촉하여 규정되는 사회적 산물이다. 나를 훑는 시선이 나를 만들지 않는 경우는 드물다.

또한 몸에 가해진 어떤 규정과 시선은 자기 부정의 결과를 낳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것은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더는 부정하게 읽히지 않기 위한 집착적 실천으로 이어지게 된다. 필자의 경우, 특히 '다이어트'는 체중이 처음 늘어나기 시작하였던 약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어떤 과제처럼 남아 있다. '불어난 체중은 언젠가는 꼭 감량해야 하는 '문제적 나'이며, 따라서 이는 완벽한 내가 아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폭식, 절식, 때로는 고강도의 운동과 단식, 또다시 폭식, 이런 식의 다이어트 루틴에서 발생하는 후회나 낮은 자존감 같은 감정의 고착화 문제까지 생각해보면 실로 말하기 껴려지는 '몸'이다.

이렇게 타인의 시선과 평가가 자기 삶을 꾸려나가는 데 영향을 끼치게 되는 불편한 사회적 과정은, 인간을 지배하는 뿌리 깊은 이

데올로기가 어떠한지를 재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필자가 경험한 까만 피부에 대한 조롱, 마른 몸과 통통한 몸 사이의 편향된 시선, 패션을 매개로 한 자본권력의 시선, 모유 수유의 성패에 따라 여성 몸을 규정하는 입장은 '인종주의', '자본주의', '가부장제' 등 오래된 구조적 조건에 의해 발생한 것, 다시 말해 '이데올로기'로 구성된 위계적 렌즈에 의한 것이다. 이 렌즈를 거쳐 현상한 몸은 '다른' 몸이라는 이유로 주류에서 거부당한 뒤, 이와 동일한 시각으로 '다른' 몸을 보는 경험에 이른다. 나를 괴롭힌 그 시선이 타인을 평가하는 시선이 되는 반복, 결국 몸의 존재 앞에서 펼쳐지는 위계화된 시선의 반복은 이에 영향을 받은 개인의 몸 실천을 지속하게 하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시선 범주에 갇혀 나타나는 몸 실천은 여러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지닌 사회적 의미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성형수술 붐 현상은, 이상적인 아름다움의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집착하는 개인(특히 여성)의 실천으로 부각되어 비치곤 하지만, 그 근본을 따라가 보면 이러한 현상은 사회가 극단화시킨 외모지상주의에 의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성형수술은 나이를 떠나 주름 없는 얼굴을 갖고 싶은 고령 세대에게서도 거론되는 외모자본의 획득과 유지를 위해 필요한 몸 실천으로 굳어진 지 오래다. 같은 맥락에서 바디프로필 유행 현상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것을 기점으로 한창 유행하였던 바디프로필 열풍은 식이요법과 고강도 운동을 통해 '이상적인 몸'을 만들어 외부에 보이는 것을 목표로 나타난 사회적 현상이다. 바디프로필 유행이 거세었던 시기의 SNS 세계는 '관리된 몸'들의 집합 소였다. 중요한 것은, 관리에 의해 만들어진 이상적인 몸은 철저한 식단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조건이 충분한 위치의 사람들에 한해 '전유된 몸'이라는 사실이다. 또한 관리된 몸들의 두드러진 시각화 속에서 그에 부합하지 않은 몸들은 건강관리



여성빅사이즈 전문 모델로 활동하는 개그우먼 김민경(출처-쇼핑몰 공구우먼 <https://www.09women.com>)

에 소홀하며 계으른 이탈적 존재로 취급당하기 더욱 쉬운 조건에 놓이게 되었으며, 그려한 이유로 더욱 말해지고 드러나기 어려운 위치의 몸이 되어 버렸다.

이처럼 특정한 사회적 기준의 발생과 존속은 그에 따라 사회적 구성원의 삶을 조형한다. 몸을 규정하는 것대는 다르고 다양한 몸을 거부하는 사회 지배 질서가 효과적으로 작동한 결과로 나타나는데, 이른바 '정상'이라 불리는 몸의 출현이 그것이다. 문제는 사회가 규정한 '정상적', '이상적' 범주에 부합하는 몸이 시민권 획득의 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현실이다. 이를테면 '젊고 아름답고 날씬하며 똑똑한 몸'은 사회·경제·문화의 장에서 어렵지 않게 자신의 권리와 이득을 취할 수 있게 되지만, 이와 반대로 '정상과 비정상', '아름다움과 추함' 등, 이분법적 규정에 의해 분리되어 범주에서 이탈한 몸은 선택받지 못함

“
정상을 향한 추종이 아닌,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를 지우는
다르고 다양한 몸에 대한
서사는 아직 많이 필요하다.
”

1) 로이 리처드 그린커, 「정상은 없다—문화는 어떻게 비정상의 낙인을 만들어내는가」, 메멘토.

과 동시에 드러나는 것 또한 어렵다. 취업 현장에서 외모나 키, 몸매가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현실, 방송 매체나 SNS를 지배하는 전형적인 '관리된 몸'의 존재를 통해 알 수 있듯 우리 사회의 '정상'으로 규정되는 몸은 정상 아닌 몸을 지운다.

인류학자 로이 리처드 그린커는 낙인을 연구한 자신의 저서¹⁾에서 "애초에 누구도 정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사회가 누구를 받아들이고 누구를 거부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발생시킨 "정상"이란 개념은 "유해한 허구"라고 정의했다. 젠더, 계급, 세대, 장애, 인종과 같은 문제를 교차하며 여전히 가혹하게 작동하는 중인 우리 몸에 대한 "유해한 허구"는, 이제 아름답지 않은 몸, 나이 든 몸, 병이나 장애가 있는 '다른' 몸들을 지우지 않고 긍정하기 위한 "무해한 저항"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저항은 이미 시작되었다.

다양한 몸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가치와 자기 몸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자는 취지를 중심 삼아 시작된 '바디 포지티브'(Body Positive) 운동은, 자기를 사랑하는 일이 일평생 어려웠던 존재들에게 용기를 준다. 사이즈 차별 없는 다양한 체형의 모델과 규정된 외모 기준을 따르지 않는 미디어 속 인물이 등장했다. 이와 함께 흉터가 있거나 마르지 않아도, 혹은 장애가 있거나 아픈 몸을 가졌어도 극단적으로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며 일상에서 자신감을 갖고 생활하게 된 사람들의 서사가 사회의 편견 어린 시선에 맞서 응답하는 중이다.

정상을 향한 추종이 아닌,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를 지우는 다르고 다양한 몸에 대한 서사는 아직 많이 필요하다. 자기를 긍정적으로 상대하는 일은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롭게 되는 일이면서 동시에 타인을 시선에 가두지 않는, 즉 다른 몸을 존중하는 일이다. 근본적인 몸의 통치에 대해 저항하는 행위자가 늘어날수록 복잡하게 교차하는 여러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의 길도 열리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 몸엔 무해한 저항이 필요하다. ☺



손 내밀기 전에 물어봐 주세요
질문은 존중의 시작입니다

도움이 필요한지 확인하셨나요?
질문하는 순간 우리에게 도움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됩니다
무조건적인 도움보다는 질문으로 저희를 존중해주세요



한국장애인재단 2022 장애인 인식개선 공모전 포스터 부문 우수상 수상작
'질문은 존중의 시작입니다'



대전광역시

DAEJEON METROPOLITAN CITY

35242 대전광역시 서구둔산로 100